

第63回

서울特別市城北區議會
本會議會議錄

第3號

城北區議會事務局

日 時 1997年10月2日(木) 午前10時

議事日程

1. 區政質問の件

附議된案件

1. 區政質問の件(議長 提議) 1面

(10時01分 開議)

○議長 趙基燦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까지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잠깐 보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97년 10월 2일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나광수의원을 간사에 김남효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區政質問の件(議長 提議)

(10時02分)

○議長 趙基燦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 본회의에 이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어제와 같이 신청한 의원들의 가나다순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질문순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 방법도 어제와 같이 셋 내지 다섯 분씩 일괄 질문, 일괄 답변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질문횟수는 본 질문과 보충 질문을 합하여 2회 이내로 제한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하여 신중현의원님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宗鉉議員 삼선2동 출신이면서 행정위원회 소속으로 있는 신중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기찬의장님을 비롯해서 선배동료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바쁘십니까? 또한 우리 성북구 발전을 위하여 재정자립을 높이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진영호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관님들 또 우리 공무원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관계는 서로 어려운 일은 서로 같이 고민을 하고 또 좋은 일을 서로 위로 격려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서 질문을 한다는 사실을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곧바로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방자치하고 세원이 지방세 중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 대상인 토지와 건물에 대한 보다 철저하고 적극적인 세원 발굴과 더불어서 확충 방안을 수립하시기를 바라면서 96년도 대비 97년도 재산세 수납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지방세 부과 징수과정에서 착오 과세되어 과오납으로 처리된 반환금액이 무려 784건이 되고 2억7,000여만원이 납세자들로부터 조세 저항을 발생시킨 바가 있습니다. 이에 시정을 촉구하며 과오납으로 처리된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96년도 예비비 사

용 내역을 보면 노인정 매입을 했고 북악골프연습장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또 성북문화원 창립총회 경비 등으로 사용하는 등 성격에 맞지 않는 지출이 이루어진 바 차후에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비비의 사용 목적은 우리 관계관들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을 전제로 해서 행정을 다루는 입장인니까. 더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97년도 예비비 사용 내역이 있다고 하면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세외수입 면에서 매년 누적된 미수납액이 약 120억원이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 주요내용 및 세수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를 보면 사업비 불용액이 무려 118억원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으로 밝혀지고 입증됐음을 누구도 부인 못할 것입니다. 또 국공유지 재산 임대 수입은 예산액이 1억6,000만원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은 3억6,000만원으로 그 차액이 무려 2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뤄지지 않고 있음을 입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 관계관님들은 행정을 전문으로 또 회계를 전문으로 경제 원칙을 전제로 해서 이어지고 우리 의원님들은 비전문입니다. 또 우리 의원님들도 책임이 막중합니다. 지금 여기에 나타난 것으로 본다면 40%밖에 우리가 예산수립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이 단적으로 입장을 밝혀 주고 있습니다. 이번 98년도 예산문제에 대해서는 더 세심한 주의를 저 자신부터도 할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관계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효과적이고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예산수립을 좀 해 주셨으면 기초초안을 잡아 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예산수립을 할 적에 심의를 할 적에 좀 심도있게 또 나름대로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북천 북개위에 아파트 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성북상가 아파트 관리상태는 어떠한지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분석은 해 보셨는지, 성북상가 아파트 입주세대는 몇 세대나 되

는지 아시는지 상세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삼선2동 관내만 하더라도 약 340 여 세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입주자들의 아파트 입주권은 그야말로 우리 진영호 청장님께서 행정력을 발휘하시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에 서로 유대적인 관계를 가져서 이 분들을 도와 주셔야만 되겠다는 말씀을 확신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성북상가 아파트는 입주 계약만료기간이 30년으로 되어 있어서 1998년도 몇 개월 후로 남아 있습니다. 붕괴위험이 있는가 하면 위험요소가 너무나 많고 거기에는 영세민들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보고서 우리구 의정에서나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구청 관계에서도 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관들도 몰라라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여기에 대한 관계는 사전 대비 철저하게 해서 우리 서민들을 울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우리 진영호 청장님한테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우리 구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공사건수와 금액을 말씀해 주시고 부실 시공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그 뿐만 아니라 투명하고 공정한 낙찰 및 공사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방송을 들어보니까 지금 성수대교 뿐만 아니라 지금 어디입니까? 철도가 부실되어서 지금 재시공을 하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국가적 낭비, 재산낭비라고 이런 문제가 나와서 예산낭비로 지금 절약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한다고 한다면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경부고속도로 철도 등이 붕괴되어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받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2개월 전에 안양고가도로가 개통한지 20일만에 붕괴위험이 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우리 성북구에서도 지금 바로 우리 의사당 밑에 동소문동 아파트 축대가 붕괴돼서 인명피해가 나고 재산손실이 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 사람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시공자나, 감리사나, 감독 관청이나 책임은커녕 반성조차도 없는 이런 상황에 있는 실정으

로 봤을 때 답답한 심정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는 적당주의와 무지, 무능해서 이어지는 관계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관급공사 발주 및 공사감독을 둘러싸고 뇌물을 수수하는 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있다 합니다. 건설업자와 유착이 되어가지고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 성북구는 진영호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관들이 소신과 확신 그리고 신념의 철학을 가지고 행정을 해 오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도 질문을 드립니다. 진영호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님들한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입찰과정에서 공사 발주 관청은 낙찰가를 10개를 공고하는데 이를 봉투에 넣어서 3개를 현장에서 임의대로 업자가 선정되게끔 뽑게 한다고 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평균금액 90% 이상을 낙찰가를 결정하는데 담당공무원들이 일조를 한다고 그래요. 그뿐이 아니라 담당공무원들이 사전에 봉투의 위치를 알려주고 거기에 입찰을 하게끔 봐서 유찰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저보다도 진영호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부실공사를 조장하고 비리와 병폐를 조장하는 이러한 공무원들은 앞으로 어떤 대안을 해야될지 참참한 심정일 것입니다. 단 우리 구만은 이러한 공무원들이 일체 나와서는 안되겠다,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우리 진영호 청장님께서 인사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보다 철저하고 그야말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하고 깨끗한 양심으로 공복자로서 역할을 다 하셔서 책임과 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고 또한 자신의 전문성을 기해서 우리 공직사회 풍토가 그야말로 우리 구민들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는 참다운 우리 구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 공직자들에게 당부드립니다.

다음 성북구 관내 구유지 점유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사유지가 있고 도로 부지가 있고 하천부지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유지 관계는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

리 관계관님들께서 특별히 관리하는 관계니까 말씀드립니다. 주민들에게 5년치를 한꺼번에 소급 부과하여 변상금을 주민들한테 부과한 관계는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우리 지금 현재 여기 앉으신 우리 관계관님들이 물론 하신 것은 아닙니다. 과거 여러분들의 선배, 그들이 잘못했다는 얘기입니다.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사료되고 담당공무원들의 업무태만 및 내지는 직무유기라고 까지 저는 역시 이것도 청장님께서 주관을 가지고 변상금을 감면해 줄 용의는 없는지, 왜냐하면 국공유지 점유하고 살고 계신 주민들이 대부분 30년, 4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일언반구 말한마디 없다가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영세민들한테 수백만원서부터 수천만원에 이르기까지 부과하여 징수하게 되는 이런 문제는 어느 행정입니까? 민주의 행정으로써는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행정가로서 두각을 나타내시는 우리 진영호청장님께서 꼭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민주주의 제도는 지방자치 완성으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방자치는 최선의 목표가 우리 주민은 위한 것이기 때문이며 지방자치 공무원들은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인의 만족을 위해서 가슴과 가슴으로 일한다고 하는 의식변화가 있지않으면 안되겠다. 왜냐하면 권위주의, 편의주의 행정에 익숙한 관치행정 시대와는 달리 지방자치 행정은 행정의 서비스로 선택을 가질 주민들의 입장에 서서 질 높은 서비스를 하신다고 항상 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관계관님들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계가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도 일조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基燦 신종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시준의원님께서 질문을 취소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순서는 안철용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傑瑠議員 존경하는 조기찬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영호구청장님

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만나 뵙고 구정질문을 논의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고 반갑습니다. 본의원은 행정위원회 위원장 안걸용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목청을 높여 구정질문은 수차례 했으나 추진결과가 미흡했다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한번 지적하고 촉구하오니 이번에는 꼭 실천되기를 바라면서 질문합니다.

첫째 국장실 및 동장실을 정비할 생각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행정 변화에 과감하게 적응해야 하는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일례로 5개 국장실을 하나로 하나의 공간으로 통합해 인건비와 경비들을 절약해야 하리라고 보는데, 구청장은 국장실을 하나로 통합할 용의가 있는지와 동장실을 1층으로 옮겨 주민들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구청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용역비 과다 지출에 따른 청내 용역 부서 양성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나라가 국제경영 연구소에서 경쟁력을 분석한 결과 세계 46개국 가운데 27위, 경쟁국 33위로 나타나는 등 총체적인 위기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사회전반에 고질적으로 만연해 있는 고비용 저효율성의 사회 구조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작은 실천의 하나로 성북구의 용역예산 약 6억원이 소요되는 용역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청내 전문용역부서를 양성할 용의는 없는지, 또는 각종 사업별 용역비 지출이 현실에 맞는 적절한 금액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성북구 미관 및 도시경관을 바로 세우기 위한 마스타 플랜을 세워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의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시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선자치 2년이 지난 지금 성북구 어디를 보아도 성북의 특징을 찾아보기가 힘이 들 지경이며 애항심을 고취시키거나 구민의식을 확립하기 위한 움직임도 볼 수 없습니다. 성북은 도시계획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곳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

다. 그것은 구민들이 시내를 조망할 권리가 있으나 고층 아파트 건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현실의 한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층 아파트의 숲으로 벽을 쌓아 아름다운 자연 공원인 북한산을 바라 볼수 없게 하고 자연 경관을 무시하는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 주택가에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면 그 주변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성북구는 자연환경에 알맞는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아파트는 지역특성에 맞는 지역별 아파트 형성지를 고시하고 성북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정원이 조성되는 개발 사업이 추진 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기본 마스타 플랜을 설정해야 하고 시민들의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지정한 도시계획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조례로 제정해 시행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공동구를 만들어 지하 매설물을 공동으로 관리할 생각은 없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행정위원회 전 위원님이 성북 전화국을 시찰하여 전화국장님과 간부로부터의 전기통신에 대한 주민불편의 민원사항과 건의내용을 장시간에 걸쳐 질문과 토론을 벌인 바 있습니다. 언제까지 예산낭비성 도로굴착을 계속해야 할 것인지 이 일을 해소하기 위해서 성북관내 각 기관장 업무협의체계는 어떻게 시행하고 있으며 발전적 행정과 미래지향적인 타당성과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지하공동구를 만들면 상하수도를 비롯해 전기, 통신, 가스 등 모든 지하 매설물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므로 구청장은 지하공동구 시설 및 지하매설물의 종합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 조례를 정비하고 단 몇 킬로미터만이 라도 시범적으로 실시해 볼 의향은 없는지 솔직한 답변 바랍니다. 지역적인 특성과 예산을 감안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지하공동구 시설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다시 답변 바랍니다. 다섯째 교통난과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련 조례안을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주차장법 시행령 제 7

조 제 2항에 의거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 경계선까지의 직선 거리 100m 이내로 또는 도보 거리 150m 이내로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음을 상기하고 부설 주차장의 설치 기준을 완화해서 주민들이 낡은 건물을 헐고 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물 지하기제식 주차장 대체 조성비를 받아 주차장이나 주차빌딩을 건축한다면 큰 효과로 주차난이 해결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성북 관내에 20m 이하 도로변에 개구리 주차방법과 저녁 22시부터 익일 아침 08시까지 주차할 수 있도록 허용함과 다시 말씀드리면 하절기와 동절기의 시간차를 고려하여 주차 허용과 단속을 병행하면 주차난이 크게 완화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실시 해 볼 용의가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여섯째 장위동 66의 8호, 9호, 36호, 144호, 145호, 366호 6필지상의 허가부터 준공사용 검사시까지의 행정조치 업무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합병 조건은 있었는지 없었는지 병행해서 답변바랍니다. 상기 6필지중의 대지 66의 8호, 73㎡ 약 22평은 소유자가 다른 66에 95호 43㎡ 13평 양지상에 65년 4월 7일 신축되어 준공받아 사용중인 바 민원이 야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중으로 허가 처리되어 준공검사가 95년 2월 20일 처리됨은 행정이 어떠한 근거와 조치에서 취한 조치인지 또한 허가 조건은 무엇이었고 조건이 이행되었는지 명쾌한 답변을 바랍니다.

일곱 번째 삼선동 3가 31-12호 지상하 건축허가시부터 준공사용 검사시까지 행정업무 조치 내역 및 감리 감독 사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입법 건축물로 민원이 접수 고발되어 미준공 처리되었는데 현장은 확인 하셨는지 소상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基燦 네. 안걸용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돈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십시오.

○安敦洙議員 존경하는 조기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살맛나는 성북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진영호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구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릉 2동 안돈수의원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은 성북구 정릉 3동 산 1번지 235호 토지는 교육청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무허가 건물로서 무허가 대장도 없고 향측 판독도 없습니다. 단지 무허가 건물을 고발하고자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위치를 창덕 초등학교 정문길이고 정릉 종합사회복지관 바로 앞에 사진을 보시면은 아마 옆에 있는 사람이 피해가 가는 지 안가는 지 아실 것입니다. 이따가 어떤 분이 담당자이신지 사진을 보시고 처리를 해 주십시오. 총체는 집으로 되어 있지만 사람이 살고 있지를 않습니다. 제가 본 것만도 한 3년이 지났습니다. 약 3 여 년동안 관련 부서가 어디 인지 몰라도 복지관의 행사때마다 여러 과장들께 어떤 차원이 되었건 처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고 상의를 하였고 구청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처리가 되어 있지않은 것은 어떠한 이유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집이 어떤분의 말씀을 들으시면은 50년 정도가 되었다고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허가 건물을 고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개선이냐 그 집기가 지금 썩고있습니다. 이것이 전염병 발생방지 차원,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복지관 앞이고 창덕초등학교 등·하교길입니다. 행정이 이런 것 하나 처리 못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어떤 차원이 됐건 처리를 해주시기 당부드리고 지금까지 방치해 둔 데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또한 이 자료는 정릉3동 노인의 집 매입계약서입니다. 계약서에 보면 97년3월12일날 계약해서 4월25일날 잔금지불이 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는 2억72만원입니다. 잔금일자가 4월25일이면 잔금지불일과 일정을 맞춰서 보수를 하든 새로 신축을 하든 사업을 해야되는데 토지매입 잔금일이 4월

25일이면 벌써 5개월이 지났습니다. 5개월이 지난 지금에 설계감리비 2,000만원을 추경에 승인해 달라고 올라온 상태입니다. 내일모레 예산을 승인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5개월 내지 1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구민의 혈세인 예산을 낭비해야 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아마 구청장님의 개인자산이라면 이렇게 운영 안하실 겁니다. 비단 이 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토지매입, 건물매입 해놓고 업무소홀 내지는 방치하는 것이 수 건이 됩니다. 일일이 다 열거는 안하겠습니다. 만약 10건이 되면 20억이 되고 지금 정릉3동 노인의집 매입이 2억원 정도이지 주차장부지 건물은 1필지에 6억 내지 7억이 됩니다. 그런 것도 연초에 매입 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구민이 내는 세금을 몰래 훔치는 것은 도둑이라고 하겠지만 이런 사업을 하려고 토지·건물 매입 해놓고 사업 안하게 되면 누구 하나 도움받지 못하고 없어지는 손실이 얼마인지 알고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만약 계산방법을 모르신다면 요즘 은행에서 하루만 맡겨도 연간 10%의 이자를 준다고 하는데 만약의 경우 20억이 1년이 지나면 2억이고 6개월이 지나면 1억입니다. 정말 대단한 예산이 소모가 됩니다. 부서간 서로 업무협조하고 정보교환해서 또는 인력이 없으면 용역을 해서라도 일을 똑바로, 구민의 혈세인 예산을 절감하고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데 세금을 받아서 정확히 쓸 곳에 낭비없이 사용한다면 납세를 하는 주민께서도 아마 거부하지 않을 겁니다. 이러한 행정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지 정확한 답변 바랍니다. 본의원이 작년에 정릉2동 어린이집 건물 및 토지 매입하고 6개월, 7개월 후에 어린이집을 개원할 적에 지적을 하였는데 우리 성북구청 행정은 그때만 지나가면, 시간만 지나가면 되는 줄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하시는지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본의원이 계산해서는 이렇게 성의 없이 무책임하게 행정을 하는 바람에 손실되는 이자손실이 수천만원, 수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국회의원님들은 떡값을 수억원씩 받아도 되겠지만 우리 행정 공무원들은 단돈 1천만원이고 부당한 돈을 챙기면 면직 내

지는 징역을 사는데 이렇게 손실되는 예산에도 한계선을 그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이 자료는 민간보육시설 용자금 신청구비 서류입니다. 민간보육시설을 설명드리면 어린이집이나 유아원, 즉 어린이들이 밝고 명랑하고 씩씩하게 자랄 수 있도록 또는 맞벌이 부부등의 일손을 덜어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물론 우리 구청의 자산이 많아지고 구립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을 하면 굳이 예산을 용자할 필요가 없겠지만 우리 구청에는 자립도가 50% 정도밖에 안됩니다. 즉 50%의 자립도라는 것은 우리 구청 행정공무원이 약 1,800명의 월급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더구나 우리 구는 복지시설이 타 구보다 태부족인데 담당자가 홍보부족이나 업무소홀로 우리 구민이 불편해하고 손해를 보는 일이 합당하다고 생각되는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이 자료를 보면 1994년도에서부터 보육시설 허가를 시설을 하기 위한 토지매입이나 건축이나 시설을 하기 위한 예산을 저리로 용자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부터 이런 사업이 92년7월까지 용자를 신청하면 신청절차에 따라 적합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보육시설을 확대할 수 있는데 94, 95, 96, 97년 2월 무려 약 4년이 경과되었는데 홍보부족, 업무소홀로 94년, 95년, 96년에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97년에는 14건이 접수되어 12건이 선정되어 23억4,600만원의 예산을 저리로 용자하여 12곳에 설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홍보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성북신문이나 공보실에 홍보하라고 하였는데 안되었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업무인지 타인의 업무인지도 모르는 사례는 행정을 총괄하는 구청장님의 업무태만이 아닌가 사료되는데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료는 성북구 정릉2동 166-28호, 32호 내 도립빌라 주택에서 도시가스보급을 하기 위한 95년도에 계약금을 입금시킨 자료입니다. 우리가 통상 계약이라 하는 것은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요식행위인데, 즉 약속인데 일방적으로 입에 맞는

떡만 골라먹고 힘들고 좀 어려운 곳은 구민의 불편이나 애로사항에는 몰라라 하면서 영업을 하여도 행정관청인 우리 성북구청에서는 관리한 흔적이 없습니다. 이러면서도 구청장님께서는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 43.9%를 한다고 그랬는데 본의원의 견해는 구청장님의 희망적인, 가상의 생각으로밖에 안됩니다. 더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본의원이 지역 주민과 가스회사 직원과 담당 공무원과 가스보급을 위한 설명회 내지는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점을 찾기 위해 해결을 해보려고 노력을 해봤으나 가스회사는 가스회사 대로 관계공무원은 관계공무원 대로 시간이 지나갔으니 그만이라는 아무런 대책도 반응도 없습니다. 이렇고서도 가스보급을 위해 일한다고 하시겠습니까? 정확한 답변 해주시고, 좀 전에 열거했지만 정릉동 166-28호, 32호 도림빌라 주택의 계약금으로 정릉2동 새마을금고에 예치하였으나 일방적으로 계약을 무시한 것을 행정부에서 희망사항이 아닌 실질적이고 책임있는 행정의 일환으로 검토하시고 감시하시어 정릉2동 166-28, 32호 도림빌라 주택에 도시가스 보급을 금년 내에 될 수 있도록 행정을 해주실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趙基燦 안돈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신종현의원님, 안절용의원님, 안돈수의원님 세 분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청측 답변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時41分 停會)

(11時03分 續開)

○議長 趙基燦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측 답변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측에서 답변하실 때에는 질문하신 의원님과 질문요지를 말씀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영호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區廳長 陳英浩 답변에 앞서서 그동안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성북구청만은 집

행부와 의회가 아무런 불협화음없이 잘 지내왔다, 집행부로서는 사소한 건으로 의원들간에 서로 다툼이 있어선 안되겠고, 또 의원들간의 문제로 집행부가 서로 갈등을 겪는 일도 있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해온대로 오로지 구민을 위해서 우리 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가 열심히 해온 것만은 25개 구청중에서 최고의 구청으로 자리잡고 있고, 또한 그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중이라도 똑같이 서로 어려움을 상의해가면서 열심히 지역발전에 같이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립니다.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답변을 드리고 또 실무적으로 좀더 세밀하게 파고들어갈 사항은 실무적으로 국장 또는 과장님들이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신종현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지방세에 의거 수납실적 문제라든지 또 부과징수 과오납 등 착오 촉구 이런 문제는 해당 재무국장께서 답변을 하도록 하시고, 예비비사용 문제에 대한 좋은 충언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가능한한 예비비를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업비 불용액이 좀 과다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변명같습니다만, 원래 사업비에서 대개 불용액을 보면 몇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우선 낙찰차액은 차기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고, 특히 불용액이 많은 것이 보상비입니다. 대개의 경우에 도시계획 건설사업하는데, 보상에 불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울시 수용위원회를 거쳐서 건교부 수용위원회로 올라가는데 보통 8~9개월 걸립니다. 그러다보니까 재결이 떨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대개 불용액이 발생하는 부분이 보상비 차원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어쩔 수 없이 절차를 겪다보면, 예를 들면 도시계획 사업같은 경우 저희들이 공람, 공고하는 기간, 또 구 도시계획위원회 통과하는 기간, 구의회 통과하는 기간, 통과후 가서 서울시 도시계획하고 업무협의하는 왔다 갔다하는 기간, 또 시의회에서 동의하는 기간, 또 시에서 도시계획위원회로 올라가더

라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또 심의하고 보류하고 이러다보니까 대개 도시계획이 지금 빨라야 1년에 끝나는 제도적인 모순점이 있습니다만, 현재의 법 테두리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빨리 추진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런 차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천 아파트 문제는 지금 현재 D급입니다. D급이면 상당히 위험한 건물인데, 98년도 내년이면 소위 지금 지상권밖에 설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하천이고 그 위에 아파트 건물이 들어서 있는데, 성북천과 정릉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정릉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옛날 우리 선배들이 거기다 어떤 차원이든 집을 짓도록 만들었고 또 민법에 의하면 30년만 지상권이 인정된 것에 대해서 내년이면 그 소유권이 성북구청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토지는 구것이고, 건물은 개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건물비를 보상을 해주고 내보내야 됩니다. 원칙이, 그런데 아시다시피 30년된 건물을 평가하면 얼마나 나오겠어요. 그러면 과연 그 건물비만 보상해 주고 나가라고 했을 때 거기에 살던 주민들 그것도 처음부터 살던 주민들도 아닙니다. 대개의 경우에 전매되고 전매되고 해서 수십명의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구청에서 감당할 수 있느냐, 그래서 사실은 원래 허가를 내줄 때 서울시에서 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책임을 져라, 해서 하천관리권을 서울시에서 넘겼습니다만, 안받을려고 해요, 서울시에서도, 결국은 뭐냐, 구청에서 알아서 책임을 져라, 그렇지는 않고 지금 상당한 다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상당한 부분을 서울시에서 넘겼습니다. 우선 관리권을 서울시로 넘기고, 그다음에 내년 보상문제가 결정될 때 당연히 보상도 서울시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 하기 위한 전초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크게 드러내시지 마시고 저희들이, 결국은 그렇습니다. 건축비만 해가지고는 도저히 나갈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 아파트라도 지어가지고 임대아파트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데 그것은

또 그런 문제만 가지고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시장이 있어요. 상가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주택은 한 411동밖에 안됩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상가가 308동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권리금이 평당 몇 천만원씩 왔다 갔다 하는 거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 맡기고 구청장이 시와 가장 고민거리중의 하나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건수와 금액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성북구청은 그동안 민선 2년동안 단 한건도 비리로 인해서 검찰 수사를 받은 직원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했다. 사실 우리만큼 많은 공사 발주를 하고 많은 공사 현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북에는 단 한건도 없었다. 하는 것은 그만큼 우리 직원들이 잘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 다만 제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계약중에서 가장 좋은 계약이 수의계약입니다. 수의계약이 가장 좋고 그다음에 좋은 것이 지명경쟁계약입니다. 몇 사람 지명해서 하는데, 그 다음에 제일 나쁜 것이 공개입찰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그런데 수의계약은 공무원들 못믿어가지고 공무원들이 마치 특혜를 주고 비리를 할까 싶어서 법으로 전부 막아버렸어요. 지명경쟁까지도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입찰을 하도록 하면 보통 적은 액수 공사는 우리 같은 경우에 3백명, 4백명이 옵니다. 3백명, 4백명이 하도록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만, 3백명 4백명가지고 입찰이 되면 예정가로도 요즘에는 미리 알려줍니다. 낙찰이 되면 대개의 경우에 지금까지 성북에서 공사를 했다가 부도를 안낸 회사가 없습니다. 거의 전부가 부도를 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수십차례 국장 파장들 같이 합의를 했지만 무슨 방법이 없습니다. 제도적으로 막아놓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지만, 거의 보면 관상복합 건물도

하청업체가 부도내고 원 사업체가 하고, 심지어는 우리 동네 주차장 짓는 것도 부도내서 지금 계약 해지를 서두르고 있고, 하수도 준설같은 경우도 또 문제가 있고, 하 여튼 공사장 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를 거론을 결국은 전교부에 해야 되겠지만, 재경원에서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 그런 중에서도 차질없이 보증회사라든지 원청회사를 설득해서 저희들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더구나 입찰과정에서 부정이란 거의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구유지점유권 5년 변상금 운영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국공유지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매년 어느 한도를 정해서 축량을 합니다. 축량을 하다보니까 지금까지는 개인땅인줄 알았는데, 축량을 해보니까 국공유지가 나와요. 그런데 왜 이런 제도가 나왔느냐면 잘 아시다시피 국공유지를 점유한 사람이 전부 소송을 걸 어가지고 자기 땅으로 시효취득을 하는 경향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래가지고는 국공유지 전부 개인한테 뺏기는 것은 아니냐 해서 재정경제원에서 입법을 추진한 겁니다. 입법을 추진해가지고 시효중단시키기 위해서 국공유지 점유사항을 알면 안 시점부터 5년간은 무조건 변상금을 때려라, 그다음부터는 시효취득이 안되죠. 그래서 요즘에는 시효취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식으로 만들면 사실상 악법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악법이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그동안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점유해서 이용했지 않느냐, 그 이전 것은 모르지만 5년 것은 내고, 앞으로는 계속 매년 계약해서 점용료를 내야되지 않겠느냐는 것은 정부의지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제 마음대로 감액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1년 것 물리고 계속 1년, 1년 물리면 좋겠는데, 도저히 이것은 제 권한 밖이고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시 변상을 할 때는 저희들이 사전 PR을 합니다. 어쩔 수 없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이야기는 PR을 합니다만, 또 개중에는 전부 불하를 받는 사람도 있어요. 불하 신청을 하면 얼마든지

불하는 해드립니다. 10년 분할상환입니다. 10년 분할상환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분들은 좀 분할 상환하더라도 불하를 받는 방향으로 저희들도 추진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국공유지 차액 예산 심의문제 등등은 관계 담당관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용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국장실, 동장실 정비 문제에 있어서 국장실 통합하는 문제하고 동장실 1층화 문제, 상당히 좋은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한 곳이 있습니다. 동작구청같은 경우에 국장실을 각 방을 쓰면서 소위 말하는 전화 받는 아가씨들만 한 두 사람인가 넣고 있는 것도 봤습니다만, 효율면에서는 엄청나게 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선 국장들이 일을 볼 수가 없고, 또 각 국장마다 솔직히 말해서 말이 참모지 각자 기능이 독특하게 다릅니다. 도시계획 다르고 건설교통 다르고, 총무 다르고, 재무 다르고, 기획실 다르고, 또 각 국별로 무수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도시국장이면 도시계획 위원회 또 총무국장 같으면 민원심의위원회, 건설국장하면 교통심의위원회, 도시정비국장하면 건축심의위원회 이런 위원회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국장실이 바로 심의위원실입니다. 거기에서 전화는 받아야지 민원인 만나야지 그래서 효율적인 면에서는 오히려 떨어진다는, 그래서 제가 그것은 실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장실 일을 1층으로 보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전시행정 아니냐, 1층에 있다고 해서 서비스를 더 잘하고 2층에 있다고 해서 서비스를 못하는 것이냐, 저는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이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동장도 명색이 지역의 사령관이기 때문에 각종 회의가 많지 않습니까? 방위협의회다 뭐다 그래서 그런 것도 물론 회의실에서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회의실에서 할 수 있는 때가 있고, 동장실에서 할 수 있는 때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은 당분간은 앞으로 더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판단을 할 문제지 바로 제가 답변 드릴 문제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시한번 검토는 해보

했습니다.

용역비 과다지출은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 직원들이 해버리면 되지않느냐, 그런데 법으로 만들어 놔요. 반드시 기본설계해라, 반드시 실시설계해라, 반드시 감리비 넣어라,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하고 싶지가 않아요. 또한가지는 우리가 전문직을 채용을 해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하면 안되느냐 이런데, 전문직 채용할 길을 또 막아놔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계약직 공무원이란 제도가 옛날에는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이 예산만 OK 해주면 계약직 공무원들을 받아들이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계약직 공무원 한 사람 채용을 하면 공무원 한 사람 TO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기술직 가급을 채용한다면, 우리 서기관 하나 없어야 돼요. 그렇게 안되어 있기 때문에 채용할 수 있는 길이 막혔고, 또한가지는 공무원 수를 줄이고 채용한다고 해도 마음대로 보수를 개인회사 만큼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유능한 인사가 오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공무원 봉급 수준가지고는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지출을 하고 있다, 거의 요즘에는 모든 공사에 따라서 용역비가 의무적으로 지출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북의 미관 및 도시경관 바로 세우기 이것은 저도 불만이 많은 사항입니다. 그런데 권한이 구청장한테 위임이 되지 않고 전부 시에서 가지고있고 또 건설부까지 올라간 사항이 되어가지고 우리 도시 계획 확정된 지가 언제입니까? 일례를 들자면 미아 3거리 지구 상세계획을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서울시에 전달을 했는데, 이적까지 결정을 안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할 수도 수십번 재촉을 하고 별짓을 하는데 지금까지도 결정을 안해주고 있어요. 상세계획 결정을 오죽 답답하면 미리 의결을 바가지고 예외규정을 적용해서 건축허가를 내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도 제 권한 밖이 되어서 수차례 시장에게 건의했지만 아직까지 해결이 안되고 있습니다만, 그

러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나름대로 성북발전 5개년계획 지금 또 연구용역을 하고있고, 또 우리 풍치지구 이번 추경에 완전히 조사해서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조사 용역비도 들어가고 한 것 이런 것 해가지고 서서히 해나가고 또 저희들 6개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은 지금 지역 설계가 금년말이면 아마 끝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는 할 것을 하는데,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는데 그 결정 과정이 너무 늦다는 것을, 또 시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재촉한다고 그래서 잘 될 수도 없는 이야기고, 그래서 상당히 저도 안타깝다 하면서도 하여튼 제가 할 최선은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동구 설치 문제는 가장 바람직한 문제이고, 또 바람직한 문제이면서 영원히 해결하지 못할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 공동구에서 가장 잘된 곳이 프랑스죠. 프랑스 파리, 위에 40m 도로가 있으면 지하에도 거의 40m 도로로 지하도가 형성되어 있어 그 밑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여의도가 공동구가 좀 있습니다. 여의도 제일 처음에 개발하면서, 강남도 이상하게 공동구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신도시하는 가능한데 우리는 기존도시이기 때문에 과연 공동구를 쓸 지하를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죠. 할 수 없는 것은 아닌데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그런 여건 때문에 하다 보니까 굴착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1년에 매년 보면 관계관 한 국통신, 한전, 또 상수도, 하수도 우리 토목, 전화국 전부 모아서 자기 계획서를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일단은 조정을 하고 중간중간 또 조정을 합니다마는 그래요. 구청에서 예를 들면 하수도 넣는다, 상수도 넣는다 해가지고 다 예산세워 놓고 할려고 하면 한전에서는 그 해에 그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한전까지 들어갔다 하면 도시가스회사에서는 그 해에 그 예산이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 사전에 예산을 짜가지고 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것이 맞지가 않습니다. 이걸 뭐 도저히 해결을 할려고 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만부득이 해서 나온 것이 소위 도로법에다 새로

이 포장한 것은 2년간 굴착금지한다 또 그러다 보니까 도시가스를 금방 넣어야 되는데 도로굴착 때문에 도시가스를 못 넣는 경우도 생기고 이러한 모순된 점이 있습니다. 마는 이것은 정말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우리 구만 가지고 조례로 될 성질은 아니다. 다만 장기적인 계획에서 공동구를 하나라도 더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일 예를 들면 이번에 중암로 확장 공사에서 아시다시피 한전 원래 예산에 없었습니다. 한전에 그냥 여러 가지 특혜를 줘가면서 같이 좀 공동구 설치해 달라 해 가지고 억지로 추가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아마 같이 거기는 공동구가 설치가 될 것입니다. 우리 미아로 공동구 설치하듯이 이런 식으로 억지로 억지로 맞추고 있습니다. 가능한한 맞춰가지고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것이 공동구가 돼야 선진도시입니다. 그래 지금 현재는 그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부설 주차장 건설 문제와 더불어서 주차허용 시간대별 허용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이 있어요, 간선도로, 간선도로는 저희들이 주차 구획하고 한 것이 구청에서 할 수가 없어요. 20m이상 도로는 지금 전부 시에서 가져가 있고 또 특히 버스전용차선제가 생기면서 시간대 별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이고 그래 지선도로 문제는 저희들이 다시 세밀하게 검토해서 시간대별 또는 야간 주차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는 가능한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건축허가문제 등등은 관계 담당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돈수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릉3동 산 소위 환경개선차원 정릉북지관 앞에 집 혈은 것 저하고 안돈수의원하고 같이 현장에 가서 저것 좀 없앨 수 없냐고 제가 했습니다. 그것은 없어야 되는데 왜 지금까지 안 없어지고 이 의회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당연히 없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또 지금까지 없애지 못한 것은 그 만만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개인 사유지 재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관이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고 어쨌든 내 생각도 그것은 없어져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없어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 주기를 우리 구 간부에게도 당부를 드립니다. 정릉3동 노인의집은 그렇습니다. 노인의집이 영창실업간 도로하면서 노인의집 할려고 보니까 너무 위험해요. 제가 현장 가보니까. 그 도로를 뚫게 되면서. 그래서 안전진단하는데 시간이 걸렸고 안전진단 또 해가지고 또 헐고 다시 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헐고 다시 지으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지으면 사실 사람이 몇 안 들어간답니다. 헐고 다시 짓는다고 생각하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기왕이면 한사람이라도 더 넣자, 그래서 그것은 지금 예를 들면 지하 1층, 2층, 3층까지 해가지고 노인 원룸식으로 이렇게 꾸미든지 또 노인들은 그렇게 같이 살면 싸움을 많이 한다네요. 그래서 원룸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을 다시 지금 제가 검토를 시키고 있습니다. 다소는 문제가 있더라도 기왕 한 번 해 놓고 다시 수정하는 것 없이 처음부터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한사람이라도 더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재검토 지시를 해서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보육시설 융자신청의 건은 그동안 PR이 안 됐다는 것은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와 가지고 97년도는 무려 14건 약 24억 정도가 융자가 됐다는 것은 저는 그럼 97년도는 잘 했지 않느냐 이것으로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더욱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도시가스 보급에 도림빌라 주변 저 뒤에 우리 주민들도 와 계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다른 게 아닙니다. 도로가 사유지예요. 도로공사가 어려운 것도 사유지니까 소유한 사람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승락이라도 해 주면 되는데 일체 사용 승락에 응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용승락을 받으면 도시가스에서 바로 해 줄 수가 있는데 그 분야는 우리 안돈수의원님께서도 조금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합시다. 여러번 했는데 만약에 그냥 도시가스를 넣게 되면 이것은 도시가스 회사는 공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소송걸지도 않고

바로 땅값 내 놓으라고 손 벌립니다. 그래서 도시가스회사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공사비도 어려운데 사유지다 해서 바로 그것을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한 사용승락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지체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더 배전의 노력을 해서 사용승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예산 여유가 되면 차라리 공공용지로 확보를 해서 하면 참 좋겠는데 현재는 그런 어려운 여건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에 신중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 공무원 의식 변화,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되대요.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고 어제도 친절경진대회도 하고 지난 번에 특별 감사도 시키고 요즘에는 친절 교육을 매일 시키고 전화점검하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공무원도 사람인지라 한 20년, 30년 머리에 박힌 사실 관료적인 의식 나는 많이 변했어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변하대요. 그래서 전 추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못 돼서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다같이 열심히 노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議長 趙基燦 진영호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한가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영호 청장님께서 오늘 노인의날 행사 관계로 만부득이 행사에 참여해야 될 그럴 입장에 있습니다. 의사당을 떠나도록 여러 동료의원님 양해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양해하시죠?

(「네」하는 이 있음)

(구청장 퇴장)

이어서 답변 순서는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室長 金煥朱 기획실장 김한주입니다. 신중현의원님께서 97년도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예비비 집행 근거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예비비 총액은 13억 300만원으로 현재까지 4건에 9,2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면 구청사 안전진단 결

과 현관 돌출 부분과 굴뚝 상부 콘크리트 탈락 현상으로 인한 구청사 긴급보수공사비 1,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우리 구는 북한산, 개운산 등에서 봄철 건조기에,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나 산불 진화장비가 부족하여 매년 산림훼손 등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산불진화 장비를 긴급구입하는데 1,1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지난 7월 폭우로 장위2동 석축이 붕괴되어 안전에 위험이 있는 석축과 가옥 철거에 따른 긴급공사비 4,6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북악골프연습장에 현 수탁자와 관리위탁 기간이 10월 14일에 만료됨에 따라 시설 인수 후 바로 보수공사에 착수하여 관리운영기간 공백을 최소화하고 동절기 공사에 따른 부실 공사 예방과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북악골프연습장 보수공사 시설 실시 설계비 1,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6년도 예비비 집행은 13건에 4억 8,000만원으로 지난해 결산점사시 많은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금년에는 안전상 문제가 있어 긴급보수가 필요한 사업 등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집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비비 집행은 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예비비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基燦 김한주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국 총무국장님 답변없습니까? 윤수현 시민국장님 답변없습니까? 재무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財務局長 鄭顯植 재무국장 정현식입니다. 신중현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답변 말씀에 앞서서 의회와 집행부가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어려운 일을 서로 고민하고 함께 잘 추진하자, 이러한 뜻에서 질문을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점에 관해서 정말로 진솔하신 신의원님의 성은에 대해 집행부 간부의 한 사람으로서 우선 감동을 받고 더욱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가다듬으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관해서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중현의원님께서 지금 96년도 그리고 97년도 재산세 수납실적 그리고 지방세 과오납 처리의 유형별 내역 세외수입의 체납 내역 및 징수대책 그밖에 우리 구가 시행하는

공사 또 부실시공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 구유지 점유실태, 그리고 변상금 감면 영역 등에 관해서 질문하셨는데, 구청장께서 뒤에 말씀드린 4건은 답변을 원칙적인 것을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구체적인 통계수치는 따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실무적인 것 수납실적이라든가 처리 내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해 96년도 재산세 부과 지역은 51억 9,400만원입니다. 연말까지 징수총액이 50억 9,700만원으로써 약 99%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97년도 재산세 부과 고지액은 53억 8,000만원이고 51억 5,000만원을 징수해서 96%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라는 연말까지는 전년도 수준 이상의 실적을 거양토록 더욱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으로 지방세 과오납 처리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97년도 2월말 현재 다시 말씀드리어서 지난해 세입 결산 결과 총 689건에 1억 600만원의 과오납 환불금이 발생했습니다. 아까 신의원님께서 세수까지 포함해서 질문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라는 요청하신, 처음에 보내주신 질문자료에 지방세만 언급이 되어서 이 자리에서 지방세만 말씀드리고 필요하시다면 세수는 자료를 따로 이 자료를 송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방세 그 내역을 보면은 면허세가 920만원, 재산세가 1,570만원 종토세가 7,260만원 그리고 과년도 수입이 850만원입니다.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내에 과오납 환불금과 비교해서 현저히 감소되기는 했습니다. 지난해는 1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철저하고 세심한 과징 업무를 완수해서 과오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세외수입은 우리구 17개 과에서 각기 소관별로 분산 처리하고 있는 그런 업무가 되었습니다. 각 기능부서별로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지만은 그래도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총 체납이 174,235건에 무려 100억 4,700만원이나 됩니다. 이 중 96년도 발생한 것은 지난해 발생한 것은 6,342건에 26억 5,300만원이고 그 이전에 발생한 과년도분이 167,893건에 73억 9,400만원이 되

겠습니다. 그리고 96년도에 체납액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재산임대 수입이 53건에 1,300만원, 사용료 수입이 1,843건에 4억 1,000만원, 재산세 매각 수입이 3건에 7,000만원, 과태료 수입이 1,233건에 3억 400만원 그리고 변상금이 3,176건에 18억 2,300만원이 됩니다. 과년도 수입은 지금은 폐지가 되었습니다만 오물 수거 수수료가 153,000건에 4억 9,300만원 변상금이 3,561건에 46억 8,300만원 사용료 수입이 5,937건에 5억 3,100만원, 과태료가 5,369건에 16억 8,700만원이 됩니다. 이와같은 세외수입 체납분 정리를 위해서 저희는 세외수입체납 관리 프로그램을 열심히 개발해서 적정하게 운영하고 각 주관부서별로 비교평가를 격월제로 실시해서 종사공무원의 완중의지를 더욱 북돋우고 사명감을 높이겠으며 또한 고액상습장기체납자에 대한 부서별 강제징수 방안의 시행을 강력히 독려함으로써 관계 공무원이 소신을 갖고 체납징수에 총력을 가하도록 열심히 쟁겨나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인 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직원이 확고한 사명감이 뜨거운 봉사의지로 무장된 그야말로 철저한 공인 의식을 가지고 체납징수에 임하도록 열심히 쟁겨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말씀 마치고 청장님이 답변하신 것과 기타 당초에 의도하신 것 중에 빠진 것은 추가로 서면으로 해서 보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基燦 정현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수현국장님은 없으시고 박석안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管理局長 朴石安 도시관리국장 박석안입니다. 먼저 신종현 의원님께서 성북북개천 아파트 건물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 총괄적인 사항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빠진 사항에 대해서만 조금 보충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의 건립 배경이나 현재 입주상태 그리고 대책등은 전반적으로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데로 이 건물이 현재 지은지가 26년에서 28년이 되어 가지고 노후도가 상당히 진척이

되어서 실제로 안전관리상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진단하고 그 조치한 사항만 별도로 추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기는 건물이 5개동이 있고 여기에 있는 상가아파트 중에서 삼익맨션 아파트는 B 급으로 판정되어 있고 나머지 4개동은 전부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D급 받은 내용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방수가 안되어서 누수가 된다는지 또 구조물의 이음새 부분에 콘크리트가 탈락 된다는지 해서 안전이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구에서 매년 2회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민간소유 건물은 건물주 자신들이 관리하고 보수해야 될 책임이 있지만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살고 계신 분들이 전부다 영세하고 또 실제로 소유자가 여기에 있는 살고 계시는 분들이 절반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구에서 우리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매년 2회 이상을 점검하고 있는데 작년 이후에 안전관리에 대한 우리 구청의 행정력의 강화를 해서 금년에는 벌써 네 번을 점검했습니다. 여기에는 우리 공무원도 포함하고 우리 구청에 처음으로 설치한 건설 기술자문단을 전문위원들도 모셨고 해서 점검을 해 가지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러한 꼭 보수가 되어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동별로 항목별로 적체되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이러 이러한 부분들은 조속히 보수 보강을 해 주고 안전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물에 대해서는 다수 주민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항을 감안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청장님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안결용의원님께서 성북의 미관이나 도시경관을 바로 세우기 위한 마스타 플랜을 수립할 대책은 없는지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께서 총괄적인 사항은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저희 구에서도 95년도에 성북구 도시기본 계획을 수립한 바가 있고 도시계획법이나 관련법규에 의하면은 매 20년

마다 도시 기본계획을 다시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매 5년마다 집행이나 시행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고 보완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은 매 5년마다 수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예를 들면은 북한산 주변 지역의 불량 주거지역에 대한 환경개선이든지 그 풍치지구 에 띠를 유지하면서 자연경관을 이어가는 문제라든지 북한산과 정릉계곡 오동공원, 청량공원, 개운산공원, 낙산공원, 서울 성곽등을 연결하는 황상 녹지축을 형성한다든지 동소문로나 미아로를 시범가로로 정비해서 거리 경관을 제고한다든지 또 지역별 특성을 살린 상가지구로 주거와 상업화가 공존하는 도시 이러한 여러 가지 기본계획이 우리 성북구 도시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흔히들 교육이 백년지대제라고 한다면은 도시계획이나 이런 분야는 200백년지대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저희들이 지자체 이후에 아까 청장님께서 말씀을 하신대로 상당한 노력과 열성을 기울여서 많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그 성과가 당장에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매년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성북구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집행하되 잘못된 부분이나 추가수정할 부분이 있다면은 여러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 가지고 수정해서 미래 지향적이고 살기 좋은 성북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정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안결용의원님께서 장위 2동 66-8호 외에 다섯필지 건물에 대한 신축허가 및 준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장위동 66번지 8호외 다섯필지에 건물은 93년도에 건축허가 되어 가지고 95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 규모는 1,480㎡ 규모가 건물은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이고 내용은 교육연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인접해 있는 66번지 95호 소유 건물주로부터 소유자가 안현상씨가 상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역 66-8호에 대한 필지에 건물인 자기 건물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 건물이 똑같이 그 지번이 같이 올라가 있

으니까 어떻게 한필지에 건물이 2개가 들어갈 수 있느냐하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사를 해 본 결과는 실제로 건축허가나 준공과정에서 설계과정에서 66-9호 지상 건물에 이미 66-8호가 포함되어서 건축허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지를 못했었습니다. 해서 결과적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66-8호 대지상에는 건물이 2개 허가가 나간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당초 건축사가 현장 조사를 하면서 이 66-8호가 이미 개인의 건물이 건축된 필지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데서 이러한 결과가 초래된 것 같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분명히 행정적으로 잘못 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관련 건축사 건축주 등을 설득해서 양자간에 원만한 민원협의를 조정될 수 있도록 조정을 해보되 만약에 어떤 원만하게 협의가 안될 경우에는 이 업무처리를 소홀히 해 가지고 민원 문제를 야기시킨 관련건축사나 건축주 등은 엄중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성북구 삼선2동 3가 31-12호의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준공과정에 대한 경위를 물으셨습니다. 이 건은 건물주가 두사람이고 용도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 허가 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 건축 허가 되어서 96년 1월달에 사용승인된 바 있습니다. 허가 이후 저희 구청에 현재까지는 특정한 민원이나 어떤 이상정후가 접수된 바 없습니다만은,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에 대해서는 관련자를 관계법에 의해서 엄중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릉3동 안둔수의원님께서 정릉3동 산 1번지에 있는 건축물 관리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이 건물은 사실은 저희들이 탐문해서 현재 무허가 건물 대장에도 올라가지 않았고 건축물 관리대장에도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사에 애를 먹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성북구로 이 지역이 편입되기 전에 그 지역이 경기도에 있을 때부터 건축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 소유자는 김창순씨의 시모께서 이것을 하나에 무속 신당으로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1986년도에 현재 소유자

로 되어 있는 박귀례에게 무상사용토록 해서 96년 11월까지 박귀례씨가 살았던 것으로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점유자인 박귀례씨가 96년 11월달에 영구임대아파트를 배정받아서 노원구 월계 1단지으로 이사해서 현재는 공가로 되어 있습니다. 공가를 박귀례씨가 이사를 가면서 가재도구를 저희들이 판단할때는 자기가 불필요하니깐 안가져간 것 같은데 아마 어떤 불손한 저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삿짐중에 일부를 가재도구를 집에 남겨놓고 가니까 이 토지 소유자들이 건물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강제 철거를 했을 때는 또 가재도구 손실을 이유로 해 가지고 피해보상 등을 청구할 것이 우려 되어 가지고 건물주가 철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토지소유자가. 그래서 저희 구나 동에서도 박귀례씨한테 가재도구를 치워달라고 수차례 독려를 했고 지적하신 대로 이 건물을 장기간 방치했을때는 도시경관에도 저해가 되고 또 그것이 무너져 가지고 사고가 생길 우려도 있고 또 지나 다니는 인근 주민들이 쓰레기를 버리는, 쓰레기 투기장화 우려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일단은 현재 이 땅이 교육청 땅이 일부 있고 일부는 개인 안영호씨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양건물주를 독려해 가지고 예를 들면은 가재도구 이전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을 한다든지 해 가지고 조속히 법적 절차를 밟고 이 건물을 정비해서 이 지역일대가 깨끗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세분 의원님의 질의사항중에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 ○議長 趙基燦 박석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建設交通局長 朴東洙 건설교통국장 박동수입니다.

질문내용 중에서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은 답변을 약하고 답변되지 않은 사항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종현의원님께서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대책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공사방안

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마는 또 소신입니다마는 부설공사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투명한 공사방안이라는 것은 현행제도나 기준이나 모든 것이, 지금 그것이 불비해서 부설시공이 되고 공사가 부실하게 되고 한다고 생각은 않습니다. 문제는 공사담당자나 관련자들이 얼마나 의식을 제대로 갖고 공사를 정말 국민이나 시민을 위해서 시공할 것이냐 하는 투철한 사명의식에 있는 것이지 무슨 제도나 이런 것이 불비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직원들에 대한 정신교육이라든가 또 원칙에 입각한 철저한 시공감독 또 반복적인 현장의 관리 감독 강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제대로 실현할 때 이 부설시공 문제는 추방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저의 소신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계속적인 교육과 감독과 또 관리를 해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그 다음에, 안결용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질의요지는 교통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완화할 용의가 없느냐, 그래서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느냐, 그다음에 건물 내 기계식 주차장 설치비를 대체조성비를 받아가지고 주차장 건설에 사용할 수 없겠느냐, 또 20m 이하 도로에서 개구리주차장 허용하고 야간주차장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야간주차 문제는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현재 부설주차장은 설치하는 경우를 이미 구 조례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에서 부설주차장까지 직선거리가 100m, 도보거리가 120m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대통령령인 주차장법 시행령으로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숙박시설이라든가 의료시설이라든가 운동시설이라든가 시설별로 구분해서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바로 이런 시설별 기준을 완화해서 주차장을 확보, 자주 확충해 나가는 것이 어떠냐, 하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물론 지금 대통령령이니

다마는 이 문제는 좀 신중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건물주의 재산사용에 따른 여러 가지 제약도 있고 또 이해관계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문제를 검토해서 만일에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영 개정을 건의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비용을 납부하고 대신 그 비용을 가지고 주차장 건설 비용으로 쓰는 게 어떠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은 현재도 부설주차장은 면제하는 경우에 공용노외주차장이 인근에 있는 경우는 지금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건설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공용노외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실체는 그렇게 많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건설비를 납부한다는 하더라도 노외주차장 설치를 어느정도 해놓은 뒤에 해야 되기 때문에 현 여건으로는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만 바람직한 것은 그런 대체비용을 받고 주차장 건설을 하면 좋습니다는, 궁극적인 것은 개인이 자기 집에 자기 주차장을 갖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공용노외주차장을 어느정도 확보를 하고 또 원칙적으로 개인주차장, 부설주차장 확충을 자주 의무화된 것을 실현시켜 나가면서 불가피한 경우에 공용노외주차장을 이용토록 하고 대체비용을 받는 그런 방법을 앞으로 추진하면서 여건을 봐가면서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0m이하의 개구리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지금 아직 실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내년부터 한번 시범적으로 해볼 생각으로 안암동의 안감내길이 여기서 가자면 우측편으로 약 한 4m 보도에다가 보도와 분리해서 한번 개구리주차장 600m구간을 시범운행을 해볼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효과가 있다면 효과를 분석해가지고 타지역에도 한번 확대하는 방안을 내년에 시범적으로 시행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야간시간대 주차장 문제는 아까

구청장께서 개괄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 한 두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송가대 입구에서 개운사간 거리에 270m구간을 올 해 한번 야간주차 허용구간으로 지정을 해볼 생각으로 지금 서울지방경찰청과 협의를 하고있습니다마는 아마 조만간에 그것은 허용이 될 것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있고 또 앞으로 석관1동의 제 일은행에서 석관중·고교간 20m 도로에 약 400m 구간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에서 한번 허용하는 문제를 경찰과 계속 협의를 하고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만약 시행해서 효과가 좀 있다라고 판단되면 앞으로 이 문제도 아까 개구리주차 문제 같이 전 구간에 확대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基燦 박동수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측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보충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역시 일괄질문, 일괄답변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의해서 신중현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申宗鉉議員 의석에서-없습니다.)

안길용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安傑瑯議員 의석에서-없습니다.)

안돈수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安傑瑯議員 의석에서-예, 있습니다.)

네, 나오십시오.

○安敦洙議員 안돈수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도시가스 보급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저보고 알아서 하라 이런 답변 같은 답변을 하시고 가셨는데 제가 질문한 것은 일단 그 주민들로부터 계약금을 마을 금고에다 입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방적인 계약을 무시한 것이고 거기에 따른 어떠한 상세한 답변도 해주셔야 되고 또 하나는 문화가 발달되면 문화 발달되는 만큼 따라가야 되고 복지가 향상되면 향상되는 만큼의 똑같은 혜택을 받아야 됩니다. 지금 거기 사유지가 있다고 해서 어떤 변명 아닌 변명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의 경우 사유지가 있더라도 그 동네 주민이 받아야 될 복지혜택이나 문화시설을 똑같이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사유지라

는 곳이 사실상 많지가 않습니다. 2~3집 정도가 있고 또 사유지라고 해도 이미 길로 쓰고있습니다. 길로 사용을 하고있으니까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회피적인 또 노력이 없어보이는데 문화가 발달되고 복지가 향상되면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지 사유지가 있다고 해서 영원히 가스보급을 못한다는 이런 행정은 안맞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심혈을 기울여서 그래도 사유지가 되면 가스공급을 위한 사유지 매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해를 시킨다든가 이미 도로로 돼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획기적인 가스보급을 위해서 연구, 검토 자세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基燦 안돈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시민국장님 나오십시오.

○市民局長 尹守鉉 시민국장 윤수현입니다.

아마 방청석에 가스하고 관련돼서 하인빌라, 도림빌라 주민들께서 우리 안의원님한테 상당히 압력을 많이 넣으셔서가지고 부담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도 청장님께서 상당히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안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약 사유지가 40평 정도 됩니다. 두 사람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돈이 많으면 그것을 사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 청장님도 검토해 보신다고 하니까 저도 검토를 하겠고요, 또 계약관계는 뒤에 주민들도 참석을 하셨죠? 5월30일날 어디까지나 회사하고 거기 참석하신 주민들하고 합의조건 하에 사용승낙을 받는다는 그런 것이 있을 때 계약이 된다는 조건으로 아마 얘기가 돼가지고 마을금고에 모두 예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도 성의가 부족해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 같습니다마는 앞으로 안의원님도 노력을 해주시고 또 뒤에 계신 주민들도 노력을 해주시고 우리도 배전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번 갈 것을 두세 번 가가지고, 우리가 그 전에 땅을 살 때 보니까 여러번 가니까 되대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요, 이왕에 나왔으니까 아까 안의원님께서 민간보육시설 용자 안내가 안 돼서 94년부터 96년까지는 우리 주민들이 하나도 혜택을 받지 못했느냐 하는 내용인데요 아마 서로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안의원님께서 아마 자료를 97년것만 낸 것으로, 우리가 잘 못했는데요, 94년부터 나갔습니다. 우리가 안내를 열심히 해가지고 94년에 10건에 7억2,000이 나갔고 95년에 12건에 17억6,000이 나갔고 96년에 13건에 10억1,000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총 47건에 58억3,000만원이 나갔습니다.

이 점 이해를 해 주시고, 도시가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일선에 나서서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에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趙基燦 윤수현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까?

(「있습니까」하는 이 있음)

그러면 김영기 의원님이 제일 먼저 나오셨는데 김영기의원님, 윤만환의원님, 문경주의원님 세분 들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나오십시오. 김영기의원님.

○金鈴基議員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보충 질문 들어가기에 앞서 저와 우리 신중현 의원님과 비슷한 질문이 있기에 제가 원고는 저 나름대로 준비했습니다만, 원고는 제쳐놓은 채 제가 핵심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 충분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어느 동네나 다 마찬가지로 이겠지만 본의원이 살고 있는 종암1동에는 요즘 생각지도 않은 변상금 사전 예고 통지서를 받고 주민들이 우왕좌왕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해서 5년치를 소급해서 한꺼번에 요즘 같이 살기도 어려울 때에 이렇게 과다부과할 수가 있느냐, 민선 자치 시대에 구청장님께 거는 기대가 컸었는데, 오히려 구정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까지도 부과 안했던 국공유지의 변상금을 한꺼번에 이렇게 어려운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닌가 하고 동네 주민들

항의가 빗발칩니다.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구청장님의 소관이 아니라는데서 저는 설명에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종암동에 54-70에 살고 있는 김오양씨 1990년에 신축을 했습니다. 그때는 아무 제재가 따르지 않고 건축주가 요구하는 대로 설계가 나와서 건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난데 없는 변상금 예고 통지가 나왔는데, 116㎡를 시유지를 울안에 접함으로써 여기에 변상금을 5년치 소급해서 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말 같지 않으니까 당신네들 나한테 받을 능력있으면 받아가십시오 하고 탓을 안했어요.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구청에다가 재확인을 해보니까 116㎡가 아니고 2㎡가 들어 있다 그러면 2㎡가 어디로 되어 있느냐, 대의 담장에 접촉이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측량하는 기점이 동쪽에서 켈 때 다르게 서쪽에서 켈 때 동쪽으로 밀려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많은 세원을 들여서 측량을 했다고 하는데, 본인에게 지적도에다가 귀하가 살고 있는 집에 어느 측면에 이 시 국공유지가 얼마쯤 들어 있습니다 하고 상세하게 거기에 도면에 있으면 여기가 시유지가 들었나 보다 본인이 알 것이고, 또 요즘 흔히 말하는 구청장님이 구청 재원이 열악하니까 재원 마련하기 위해서 5년치를 소급해가지고 이렇게 변상금을 이렇게 예고통지했다 하는 이런 오해점도 그 위에 설명을 해서 정부 정책에 이렇게 시 공유지의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그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 주었으므로 어떤 구청장님의 오해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 등이 미비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재검토해서 본인들이 깔고 앉은 그 공유지가 과연 얼마나 어느쪽으로 접촉이 되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개개인에게 통보를 해 줌으로써 과연 본인이 알고 이것을 이해할 줄 믿습니다. 하는데서 좀 긍지를 가지시고 개인의 어떤 재산권에 가급적이면 손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우리가 성북구 같이 공사가 많은데 한건도 지금 부정적발이 되어가지고 조사받은 일이

없다 이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공무원들에게 높이 치하를 드리면서 연일 고생 많습니다. 이것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基燦 김영기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윤만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尹晩丸議員 질문에 앞서 먼저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질문을 하고자 질문 요지를 조금 늦게 내서 사실은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거기에 수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통해서 겹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구에 등록된 사회단체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또한 그 법적 근거는 각기 사회단체가 무엇인지, 사회단체 지원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과연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근거 없는 단체 예산 지원한 내역을 밝혀 주시고 어떤 단체든 구성만 하면 구성을 하여 운영을 하면 예산집행이 가능한 것인지, 또한 본의원의 자료 요청에 의해서 나온 결과로 보면 보훈 4단체 보조금 지원 내역에 자료요청에 의한 자료를 보면 회원 방문 및 경조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데까지 지원해서야 예산 낭비가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활동이 거의 없는 주부환경 봉사단의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심각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거국적으로 성북구의 환경봉사단을 구성해서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단체를 구성할 의향은 없는지 소상히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 예로 본의원이 살고 있는 성북구 보문동에 어제 오후 3시에 회원 52명으로 자연환경 보호협의회라는 단체가 임의단체입니다만 구성했습니다. 회원 개개인이 회비를 납부하여 운영하며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어제 동네 곳곳 쓰레기를 치우면서 활동하는 것을 본의원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동네는 우리 스스로 깨끗하고 살기 좋은 동네를 만들자는 구호아래 쓰레기 줄이기 운동 및 재활용품 분리 수거등 여러 가지 면에서 지역사회 발전에 봉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봉사단체가 성북구 30개 동네 범 구민운동으로 승화

발전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마을문고 운영실적 및 예산 집행 내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97년도 구에서 예산을 들여 마을문고가 없는 동네에 책을 천 여 권씩 구입해 주었습니다. 문고 운영을 지원한 예산은 얼마이며, 집행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구에서 구해준 책으로 마을문고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앞으로의 도서 확보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살고 있는 보문동의 사례는 주민들 스스로가 솔선수범하여 집에서 보지않는 책을 마을 문고에 기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범 구민운동을 벌여 회원 상호간, 주민 상호간 참여의식을 높일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공익근무요원의 주차단속 실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주차단속에 관련하여 주차단속을 담당하는 공익근무요원의 근무시간은 보통 09시부터 18시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07시부터 오후 3시까지가 조간조해서 6명, 09시부터 오후 5시까지가 청소과에서 3명, 오후1시에서부터 밤 21시까지 야간조에서 6명, 나머지 조는 17시 오후 5시부터 23시까지 4명해서 야간조로 편성이 되어 있고, 나머지 인원은 전부 주간조에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잠이 덜 깬 새벽 7시에 주차단속 딱지를 붙이고 있어 공익요원의 단속 사례가 주민을 괴롭히는 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단속을 해서 주민에게 피해를 줘야 하는 것인지, 이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 보급 및 전신 전화 주 이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성북구 도시가스 보급율은 얼마인지, 97년도 목표 및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현재 신축건물이나 수요자가 많아 가스신청을 하게 되면 얼마동안 기간내에 신청한 시점에서 얼마동안 기간내에서 가스시설이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북지역에는 한진가스와 극동가스가 독점 공급하고 있고, 또한 그 하청 업체도 그 숫자

가 적어 그 횡포야말로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횡포로 인한 원성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구청측에서는 그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면 그 실태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청에 굴착 허가를 받아 놓고 굴착기간이 지난후에 굴착을 하고 있는 상태를 정비해 본 사실이 있는지, 있다면 몇 건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진 가스와 극동가스 하청업체가 시공하는 부분에 대하여 횡포를 감시감독 할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있는지, 횡포를 제도적으로 막기위하여는 하청업체 수를 더 많이 늘려서 빠른 시공과 주민편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과 방법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97년도 성북 구민이 도시가스 신청한 건수와 아직 시공하지 못한 건수는 몇건인지 그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이나

○議長 趙基燦 윤만환의원님.

○尹晚丸議員 도로확장등으로...

○議長 趙基燦 윤만환의원님 본 안에 대해서,

○尹晚丸議員 다 됐습니다. 전신전화주를 이설한 대상 중에서 이설하지 못한 현황과 그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굴착은 구청장님의 답변 대로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전이나 전화국, 수도사업소, 도시가스업체의 협조에 의뢰하여 행정의 획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구청에서 굴착허가를 받았으면 각종 동장의 협의를 거쳐 굴착을 하는 것이 본의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의원이 보충질문 요지와 조금 상이하더라도 이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基燦 윤만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의 영역을 조금 확대 해서 질문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양지하시기를 바라고 이어서 문경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이 있음)

(「발언권 주세요」하는 이 있음)

네, 나오십시오.

○金壽榮議員 김수영의원입니다. 지금 본의원이 까딱 잘못하면 동료의원간에 개인적인 어떤 사이가 나쁜 것으로 오해될까봐 조심을 하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본의원도 한 17~8가지의 구정질문을 준비를 해 놓고 이번에 하지 않은 원인은 상임위원회나 또는 기타 휴회 기간중에 해당 간부들과의 밀도 높은 접촉을 통해서 궁금한 점을 풀려고 사량을 하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구정질문에 기간 내 들어가지 않는 사항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신 해당 의원님들에게는 섭섭하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문제는 지금부터 드리는 몇가지 이유 때문에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해서 고충어린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첫째 문제는 이런 사례가 자꾸 빈번하게 된다면 의사진행의 고유권한인 의장의 사회진행에 있어서 상당한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해서 아차 하는 사이에 지나가는데 의장님께서 이 문제는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또 하나의 전례가 되어서 구정질문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 돌출적으로 나온다면 첫째는 사전에 이 문제가 전달이 되어가지고 구청의 간부들이 깊숙하게 그 답변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금 고려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또 한가지는 아 저 사람이 구정질문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나도 나가서 보충질문시간에 본 질문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전례가 된다면 의사진행상에 질서가 무너질 것 같아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고충어린 본의원의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基燦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입니다」하는 이 있음)

윤만환의원님 조금 침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진행을 도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좀 진정해 주십시오. 마저 듣고 기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문경주의원님 나오십시오.

○文京周議員 문경주의원입니다. 우리 건설교통국장께서 개구리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안감내길이라고 한다면 보문 2교에서 대광고등학교 앞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현재 그 길은 406번 노선 버스를 민원에 의해서 직선화 시킬려고 그러는데 현재 심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염두해 두고 안감내길의 개구리 주차장을 연구 검토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이상입니다.

○議長 趙基燦 문경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김영기의원님, 윤만환의원님, 문경주의원님 세분의 보충질문이 계셨습니다. 구청측의 답변 준비와 증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27分 停會)

(14時03分 續開)

○議長 趙基燦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보충질문에 대한 구청측 답변은 시간 관계상 서면 답변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순서에 의해서 이대일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大一議員 시민복지소속 정릉 출신 이대일 의원입니다. 첫째 영세가구의 자녀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구립과외교실을 만들자라는 제안을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아시겠지만 우리나라 1년 사교육비가 20조억입니다. 정말 대단한 금액이죠. 과연 이런 금액정도라면 우리 서민가계에 미치는 경제 부담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아마 재원의 필요없이 학생들 둔 가정에는 제일 큰 비중임이 틀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들도 과외교육을 시키는데 내 자식이라고 못시킬까 하는 부모들의 보이지않는 무한 경쟁속에 심지어는 과외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한 공직자 부인이 도둑질은 못하고 매춘까지 했다는 웃지못할 그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산하에서 청소년 공부방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 운영실태를 보면은 유명무실한 입장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결코 이런 결과는 확실한 공무원들의 의지가 결

여되어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의만 있고 의지가 있으면은 호응도는 분명히 나타난다고 본의원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현재 우리 구청산하에서 주부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는 취미교실을 자칫하면 선심성으로도 보일 가능성도 있고 실제 서민 생활에 보탬이 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전면 취소하고 차라리 이 장소를 이용하여 학생이나 일반 지식인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교사들을 모아서 우리 성북의 영세자녀들을 대상으로 영, 수, 국어 주요 과목만이라도 학습이나 입시위주로 확실한 틀을 갖추어 야간과외교실로 바꾸어 본다면은 서민 가정에 상당한 경제적 도움은 물론 여기서 절약되는 강사들의 인건비도 상당하리라 생각합니다. 주무국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단란주점 영업시간 제한 문제에 대하여 주무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관할에 있는 영세유흥업자들의 주장인즉 타관할에 있는 유흥업소는 거의 밤 2시까지 영업을 허용하는데 왜 하필 우리 구에서는 자정을 넘기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이 분들의 대단한 불평 불만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간곡한 건의도 있고 해서 본의원이 사정은 어렵지만 이번 질의를 위하여 인근 구 산하 몇몇 구 관할 업소들을 돌면서 직접 확인을 해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역시 소문대로 밤 2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밴드까지도 전부 다 가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업주들은 무슨 대단한 사람인가 싶어서 제가 잡고 물어봤더니 역시 평범한 업주였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전혀 관할 공무원들이 묵인이 된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업자들의 주장은 상위법과 경찰 문제 사이가 또 도중에 있고 충분히 그런 것을 감안하고 알지만은 지방화 시대에 살고 있는 작금에 각 구의 단속 기준이 형평성 원칙에 어긋난다면은 자연적으로 우리 관할 손님을 타 지역에 빼앗긴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이렇게 될 때 손해는 결국 누가 보는 것이냐 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주무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

시며 무슨 해결책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릉 시장 재건축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정릉에는 현재 열서너군데 재건축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마 머지않은 날이면은 예상 인구 15만 정도의 대형도시 규모로 탈바꿈할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릉 2,3,4동에서 시장이라고는 한곳이 아닐 정도인 현재 정릉 3동 재래 시장이 한곳 유일한 정릉 동네의 중심 시장역할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시장은 과거에 어느 한 힘줄은 분이 하천 부지에다가 건축을하여 지금은 각 개개인한테 동기분할된 입장입니다. 지금 현재 인도도 협소하고 통행도 어려울 정도인데 건축물 자체도 노후화되어 붕괴내지는 화재의 위험성도 상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현재의 하천 부지에는 현실적으로 볼 때 재건축이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현 인근에 형성되어 있는 준상가지역이 상당히 느리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가가 싼 정릉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매입을 하는 방법을 택하든 어차피 이것이 재개발내지는 재건축이 되어야 할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 쪽이든 아니면 월곡동 청사를 모델로 하는 그런 경영차원에서 주상이나 관상 복합건물을 아무 쪽이나 쉬운 방법을 택하여 지하층과 1,2층 정도는 일반인에게 분양을 하고 나머지는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대중 스포츠 시설같은 것을 만들어서 구립으로 운영을 한다면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정릉이니 만큼 상당한 구수입도 올릴 수가 있지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 주민들은 대단히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도 주무국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릉 솔샘길 입구 모아방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위한 도로확장문제로 질의하겠습니다. 정릉에는 유일한 2차선 도로 보국문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는 온종일 정체되는 길로서 출근시에는 1Km 거리가 약 3, 40분 소요되기도 합니다. 아마 멀지않은 날에 보국문로 4차선 도로가 확장공사가 시

작되는 때이면은 정체는 더욱 심화되리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교통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보았습니다. 솔샘길 입구 모아방에서 모아방 삼거리에서 시내로 나가는 차량들을 좌회전을 시킨다면은 소통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경찰청에 문의를 했더니 현재로서는 국민대로 향하는 도로폭이 좁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이 도로를 1차선이라고 확장을 하지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무 부서 책임자인 서울건설안전관리본부 제1부장을 만나서 정릉에 대한 교통의 심각성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한 박부장께서 늦어도 10월까지의 착공이 되도록 해 주겠노라고 흔쾌한 답변을 본의원이 들은 바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구청 토목과에서도 항의한 바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예리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의원은 많은 주민들에게 현황보고를 드렸고 보고에 의해서 주민들은 상당히 조바심을 갖고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약속이 10월에 지켜질는지 이것을 구청 주무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업자들 가설비 횡포에 관하여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오전에 동료의원 윤만환의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고 중복되는 것 같아서 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화점에서 운영하는 셔틀버스 문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요즈음 동네에 나가 보면 대형백화점 마크를 부착한 셔틀버스 운행 회수가 상당히 많아졌음을 쉽게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동네 영세상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는데 그 이유는 하루에도 수차례씩 인구 밀집지역으로 순회하면서 구매자를 실어 나른다는 것입니다. 그렇지않아도 시중 경기가 불황이라 변두리 영세상들은 울상들인데 대기업 백화점에서 이러한 횡포까지 부린다니 자연적으로 보이지않는 그 손해가 크다는 것입니다. 영세상 보호측면에서 셔틀 운행에 대한 법적 규제방법이 없는지 주무국장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4시 편의점과 일반 음식점의 허가 조건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요즈음와서 흔하게 볼 수 있는 24시간이라는 편의점을 보셨을 터이고 직접 이용해 보신 분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도 절의를 위하여 몇몇 곳을 심야에 방문 확인해 보았습니다만 역시 간판의 글자 그대로 편안하게 누구의 간섭도 받지않는 24시간 올라이트 클럽을 연상케 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이라고는 전부가 20대 초반 남녀들로서 실내에는 안개처럼 자욱한 연기속에 술마시기 경쟁이라도 하는 것 처럼 날새는 줄모르고 흥청대며 떠들어 대는 쪽이 있는가 하면은 또다른 구석에는 아예 자기들끼리 안방으로 생각을 했는지 술이 취해 껴안고 잠들어 버린 모습들도 쉽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눈뜨고 볼 수 없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사각지대인 듯한 느낌 마져 들게 하였습니다. 한참 배워야 되고 학문에 심취해야 될 나이에 탈선의 온상이 되는 이런 곳을 즐겨찾는 젊은이가 요즈음 날로 늘어나는 추세인데도 어디서 어떻게 허가를 해 준 곳인지 아무런 행정규제를 받는 곳이 없다니 치외법권지대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져 들게 하였습니다. 이런 곳이 있는가 하면은 일반 영세음식점에서는 해장국 한그릇을 팔다가 10분정도 오바타임이라고 해서 적발되어 수백만원을 물리게 하고 또 심지어는 두차례 이상 걸리면은 한달간이라는 기간을 영업정지를 시킨답니다. 과연 이 두가지 법이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본의원으로서 이해가 안됩니다. 영세상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어떤 법규를 가지고 이러한 유흥업소나 식당업이 존재하는 것인지 주무국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로 공장 정릉입지 선정된 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월에 어느 주관지에 소각로 공장이 정릉 몇번지에 들어온다는 보도가 나갔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3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보도 이후에 많은 주민의 질문이 지금까지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문제는 정릉 주민들의 아주 높은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우리 주민의 궁금증을 직접 풀어드릴겸 이번 임시회 구정질의를 하게되

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의제 신청에 이어 즉시 시민국장께서 충분한 설명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첫째는 신문에 나갔던 것이 오보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법적 제한이 많은 정릉에 입지 선정문제를 백지화하겠다는 답변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이 정도의 사전 답변으로 우리 주민들이 궁금증이 충분히 풀리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단 한가지 참고적으로 정릉에 소각로 공장이 들어오면 안된다는 말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문의해 본 적이 있는 어느 한 기상학자의 말씀입니다. 정릉의 지형은 사방이 병풍처럼 둘러싸인 곳이기 때문에 바꾸니 같은 동네이기 때문에 다이옥신 문제가 완벽하게 처리되지않는 한 소각 잿가루가 날라갈 곳이 없기 때문에 우천시에는 그 잿가루가 전부다 주민들 머리에 떨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고로 소각로 공장은 바람의 분해가 잘 될 수 있는 쉽게 될 수 있는 사방이 트인 곳이어야만 바람직하다는 그런 전문가의 견해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참고가 되시기를 간곡히 바라면서 본의원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趙基燦 네. 이대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承魯委員 안녕하십니까? 석관1동에 지역을 두고있는 지역개발위원 이승로입니다.

존경하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연일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진영호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저 뒤 방청석에 일부 주민들께서 구정에 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성북구의 살림을 어떻게 집행을 하고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해 갈까 하는 기대에 찬 모습으로 지켜보고 있음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를 다시 올립니다.

행정위원회 소관 질문합니다. 지난 96년8월9일 제55회 임시회에서 성북구 석관동과 노원구 월계동간 행정구역 경계조정안이 상정되어서 본회의장에서 난상토론 끝에 표결까지 겪는 진통 끝에 우리 성북구 안 당

시 제3안으로 의결되어 동년 10월7일 공포한 것으로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 이후 여러번에 걸쳐서 본의원은 관계공무원에게 문의 결과 노원구와 협의중이라는 애매모호한 이러한 답변을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진척사항은 무엇인지 노원구청의 대안은 무엇인지 감감 오리무중입니다. 그 후 현장은 매일밤 폭력배가 들끓는 무서운 범죄의 사각지대로 자녀들 퇴근길에 마중나온 주민들의 애로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약 두 번에 걸쳐서 노원구 시의원과 구의원을 만나 협조를 요청하고 의회의 결정을 독려했지만 행정구간의 상호협의체제가 거론되지 않고 있다 하는 불쾌한 정보를 접하고 다시 구정질문을 통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그 과정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문제점들은 무엇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아울러 석계역 부근에 앞으로 두산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면 수많은 포장마차와 잡상인, 그리고 야시장을 방불케 하는 관리불능의 시설물들이 인접 중랑천 고수부지에 정착이 예상됩니다. 전년도 구정질문에 본의원이 중랑천 고수부지를 활용할 그런 프로젝트는 무엇인지 라고 질문을 함으로 당시 진영호 구청장께서는 주민들의 사회체육을 위해서 테니스코트, 배드민턴장, 하이킹 코스 등 금방 사업에 착수할 것처럼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이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그 하천부지를 계속 현재와 같이 방치해둔다면 막대한 용역비와 공권력으로도 도저히 감당키 어려운 상황에 직면될 것이 다분합니다. 우리 구청장께서 예상되는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민들에게 여가선용을 위한 공간으로써 구상한 계획이 있다면 무엇이며 그 시기는 언제쯤이 될 것이냐고 묻고 싶습니다.

다음 질문합니다. 최근 메스컴이나 일간지 등 언론매체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건축행정에 관련된 관행과 부패와 결탁 비리가 관련된 기사가 연일 사회의 문제가 되는 것을 많이 접했을 겁니다. 특혜를 주기 위해서는 편법이 동원되어야 하고 동원된 편법에는 비리가 연루되게 돼있으며 특혜와 편

법 뒤에는 반드시 다수의 서민들의 고통과 그 피해가 뒤따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96년 초 성북구 석관동 모변지에 수백평 되는 주택가 한가운데 골프연습장 허가신청서가 우리 구청에 접수기 시작됐습니다. 동년 3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27년 된 건축물로써 수십톤에 이르는 H빔과 철탑의 하중으로 안전진단에 문제가 새벽05시에서부터 늦은밤 22시까지 골프공 치는 그 소음과 조석으로 밝히는 강력한 축각의 불빛, 건축물의 주차장 미확보, 인근 8m 소방도로의 진입을 위한 교통정체와 사고의 위험, 근거리 주택가 주민들의 절대반대 라는 이런 민원사항, 이런 사유로 부적격과 함께 허가신청서가 반려가 됐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두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문제점들이 한가지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2개월 뒤 특혜와 선심의 재심의가 상정이 됐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심의위원들께서 현장답사 결과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많이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의 본의원은 허가불가사항으로 이렇게 알고 솔직히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6월 약 7~8명의 주민들께서 공사로 인한 소음과 향후 골프연습장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와 생존권 보호를 받기 위한 민원이 쇄도하기 시작했고 집단행동의 징후가 보였습니다. 본의원이 해당 과에 전화문의 결과 허가사실이 없다고 하길래 동사무소 동장님과 건축과에 문의해도 자세한 경위를 모르고 재차, 삼차 구청 건축과에 문의하니 96년12월9일 허가를 해줬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의원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써 지역사안에 대해서 당연히 알아야 할 권리가 있고 주민들께서 궁금해 하는 질문에 답해줘야 할 의무가 있기에 구청측의 경위서와 관련자료 일체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자료를 신청한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건축주로부터 본의원한테 전화가 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자료신청을 한 다음날부터 본의원한테 전화가 쇄도했을까, 이 부분은 구청장께 묻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시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한번 스스로 추측을 해보

수 있도록 비품까지 모두 장만해서 10월말 이전에 입주할 수 있도록 우리 시민국장께서 조치를 하세요.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基燦 이승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이연경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鍊炯議員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심장석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연일 노고가 많은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서 아무쪼록 주민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진실하고 성실한 또한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재개발사업의 도시계획도로개설과 과도한 기부채납 강요에 따른 성북구청의 행정조치에 당 재개발조합 일동은 억울하고 답답한 심정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종암구역 재개발사업은 1991년 재개발 지구지정 또 1993년 사업승인 1995년 관리처분 및 분양을 마치고 현재 공정 75%의 진척을 보이며 1998년 9월 공사완료 및 입주를 목표로 순조롭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당 사업부지 북측에는 폭 12m의 도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고, 98년 8월 준공입주가 되면 1,783세대 약 5,000여 입주민은 물론 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종암지역 주민 대부분이 이 진입로를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도로 계획도로는 폭 12m 총연장 1,800m에 이르는 월암교에서 종암대교간 도로 개설공사중 일부 구간으로 이미 88년1월13일 서울시 고시 제25호로 도시계획 시설도로로 결정되고, 93년 5월15일 성북구 고시 제31호로 지적 고시되어서 95년5월1일 성북구 고시 제42호로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인가된 주요 도시 기반 간선시설인 것입니다. 상기 도시계획도로는 재개발구역내가 아닌 구역 외의 도시계획 시설이고 당 재개발 조합에서 재개발 지구 지정을 신청할 때 상기 도시계획 도로의 사유지를 포함하여서 지구지정을 신청하였으나, 성북구에서는 도시계획 도로라는 이유로 재개발 지구에서 제할 것을 지시해

서 제해진 상태에서 지구지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조합에서는 도로의 개설은 위에서 언급한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 및 성북구 고시 제42호의 도시계획사업 실시확인 실시계획인가 내용에 의거 도로개설비용 일체를 성북구청이 부담하여 96년까지 당연히 개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만, 조건을 부여할 당시 도로개설에 따른 비용부담을 누가 할 것인가, 또 개설 책임은 누가 질것인지는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 재개발추진 조합에서 이 부분은 구역 밖이고 또 기간도로이면서 도시계획 도로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으로 이의서를 제출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성북구청에서는 97년7월10일 민원제기자인 당조합은 참석조차 하지 않은채 또 알려주지도 않은 그런 상태에서 민원중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설상가상으로 도시계획도로 설치비는 물론 도로상의 토지까지 매입해 가지고 도로를 개설하라고 하는 그런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원심의위원회 조례를 보면 제1조 목적,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구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회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성북구의 민원심의틀을 둔 것입니다 제2조, 기능을 보면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정당한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제시 또는 시정건의 2, 부당하거나 무리한 민원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설득 3, 기타 민원사무에 관련된 제도의 개선 건의가 되겠고, 제10조 의견청취 및 조사가 있습니다. 그 1항에는 위원회는 민원인과 민원사항과 관련된 성북구 소속 국장 또는 과장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서 의견을 들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은 민원인을 출석시켜가지고 다시 의견청취를 들은 다음 재심의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95년5월1일 성북구 고시 제42호로 96년12월까지 전구간에 대해서 성북구청의 부담으로 도로개설한다고 공람공고까지 한후 이제와서 영세한 조합원에게 그

부담을 전가시켜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모든 시책에 부응하면서 따라온 선량한 주민들이 이토록 갈팡질팡하는 행정부를 어떻게 믿고 따를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사업승인 조건 제25항의 사업구역내의 북측도시계획 도로가 일부 미개설되어 있으므로 도로개설 요망이라고 하는 애매하게 표현된 문구는 사업완료시까지 도시계획도로를 주택건설 촉진법 제36조상의 설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 해당과에서 개설이 요망된다는 표현이라고 볼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의무이행사항도 아니고 조합에게 이를 설치하라고 해석하는 것은 관련 법규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설부 주관 300411-210417호에 의거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에 따른 업무지시를 통해서 일부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주택 건설사업승인 조건으로 도로 상하수도 공공시설의 부지를 무리하게 기부채납하게 하거나 그 설치 비용을 사업승인자에게 부담시키고 주택건설 촉진법 제 36조 규정에 의거 당연히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의무가 있는 도로 상하수도 등 간선 시설과 사업부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주변 도시계획도로 등 도시계획 시설을 사업시행자에게 설치하도록 하는 사례에 대해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니 무리한 공공시설 설치를 요구하지 말것이라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금번 개정된 도시재개발법 제 46조 2항에서는 영세조합원의 자금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재개발 사업지구내의 공공시설인 도로 공원이 당해 구역 및 주변 지역의 이용에 제공되는 경우 그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자체가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지구 외의 주변 도시계획 도로를 영세한 조합원들로 하여금 개설하라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특히 당 재개발 사업은 95년 관리처분과 분양까지 끝마치고 이미 조합원의 변상금이 확정된 상태에서 이제와서 당연히 지자체가 부담해

야 할 재개발 사업지구 외의 도시계획도로의 설치에 따른 토지 매수 및 설치비용을 조합이 부담하여 설치하도록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서 현실적으로 개인 별로 정수자체가 아주 불가능한 그러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계관은 이 애매하고 법규에도 어긋난 사업승인 조건을 확대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민을 위해서 봉사하고 복잡한 재개발 업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편달해야 할 인허가권자가 오히려 책임회피로 일관하고 있으니 안타깝기 그지 없는 실정입니다. 당 재개발사업지구는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영세한 조합원들이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힘들게 추진한 사업으로써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해서 열악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공원부지 454평, 또 녹지공간 434평, 또 동사무소 부지 183평, 그리고 단지 주변 동측 8m도로 184m 또 남서측에 6m도로 465m 이러한 도로를 시설해서 총 94억원에 상당하는 대지 및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도록 함에 따라서 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더욱 열악하게 되어서 사업시행전 재산가치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수익배분으로 영세한 조합원들의 자금 부담이 가중된 아주 그러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도시재개발 사업에 적극 동참해서 93년 수십년간 거주하던 내집을 철거하고 이주해서 97년 현재까지 약 4~5년 동안 이주비에 대한 이자를 부담하면서 셋방을 전전하면서 하루 빨리 공사가 완료되어서 입주하기만을 고대하고 있는 영세한 조합원들의 그러한 입장을 감안해서 당 아파트 입주전까지 지자체의 비용으로 북측도로 계획 도로의 개설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암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시민의 숙원사업이던 종암로 확장공사가 시작됨으로 해서 동선, 미아, 길음, 석관권의 지구 중심을 보유하고 북부지역의 관문이면서 교통의 요충지인 화랑로주변 일대가 이제 병목현상에서 벗어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참고 기다려야 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공사와 정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수도관을 비롯해서 체신관로 및 한전관로를 지중화하기 위해서 인도를 굴착하는데 따른 문제입니다. 현재 공사가 진행중에 있으나 통합공사를 시행하지 않고 한가지씩 이렇게 공사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함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막대한 예산 손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하관로 부설시에 하수도랄지 모든 휴관 부설을 맞춰가지고 각종 관로를 동시에 매설한다면 상당한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유관공사와의 유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또한 집행부의 노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주변 정리를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흙먼지는 물론 공해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음을 볼 때 안타깝기 그지 없는 것입니다. 구민은 헌법에서 보장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바람부는 날이면 흙먼지 때문에 눈을 뜰 수가 없고 가게는 물론 집에 빨래조차도 널 수 없는 그러한 형편입니다. 그 종암로가 자동차가 얼마나 많이 다닙니까? 1,900m에 약 2년이라는 기간이 걸립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불편을 감안해서 공사를 시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구청관계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워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또 주기적으로 가로에 몇차례씩 물을 뿌리고 가게 앞에 발판을 깔아주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줄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8월 26일 현장을 답사하면서 종암로 확장공사에 따른 하수관로의 경사도와 구경에 따른 양측 공히 1,200m이상으로 시공되도록 요청한 적이 있고 원활한 하수처리를 위해서 하수관말 지정을 선정해서 통보를 해주기로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基燦 이연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청측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58分 停會)

(15時25分 續開)

○議長 趙基燦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장석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副區廳長 沈長錫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기찬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분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먼저 이대일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먼저 영세민 자녀를 위한 과외 교실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떠한 하는 좋은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공부방을 변형을 해서 내실있게 영세민들을 위한 심각한 과외문제를 해결하는데 착안해서 과외교실을 운영하는 것이 어떠한 하는 좋은 의견을 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서민들을 위해서는 서민들이 돈을 안들이고 남과 똑같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불어 넣는 것도 아주 좋은 일이다 생각해서 우리 구정발전에 중요한 아이디어로 특별히 검토하겠습니다만 문제는 원칙적으로 정책이 과외를 없애야 된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역행을 해서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을 비교를 해서 검토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도록 개선하도록 이렇게 채택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흥업소영업시간이 우리 구만 유독이 인근과 비교해서 규제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인근구와의 형평성도 고려를 하고 또 유흥업소 시간을 밤2시까지 연장하는 일단 부수되는 문제점도 우리가 집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또 이에 따른 구민의 정서도 우리가 분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세가지 점을 종합해서 검토를 해서 인근 구와 형평도 맞고 우리 구

민 정서에도 맞고 문제점도 최소화하는 방안에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릉 3동 시장 재건축 문제를 거론하셨는데 이것을 재개발하는 일이 공영개발시 이것을 도입을 하든지간에 이 지역 개발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정릉 3동 시장이 하천 북개지상에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대로 놓고서 재개발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제약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대로 방치해 놓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을 경영차원이라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주민복지에 기여를 하고 우리 구에 재정도 확충하고 여러 가지 효율적인 방법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개선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검토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정릉솔샘길 들어가는 데 정체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달에 저희가 서울시 간부회의에 참석을 해서 이 문제를 정식으로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 건설안전관리 본부에서 옆에를 공사비만 들인다니까 1차선도 확보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아마 이 금년말까지는 공사가 차질없이 완공되어서 그 지역에 교통정체가 원만히 풀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백화점에서 운행하는 셔틀 버스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원래 이 백화점에는 일반인 고객을 수송하는 셔틀버스 운행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측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운행하는데 그 명분을 백화점내에 있는 시설을 이용하는 회원을 수송하는 것으로 하면은 법으로 규제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명분으로는 백화점내에 있는 체육 시설을 이용한다든지 회원을 수송한다 하는 명분하에 그런 변칙 운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단속을 철저히 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매번 단속만 철저히 한다고 하고서도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그래도 열과 성을 다해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하고 계도를 하면은 그것이 시정이 되지않을까 생각을 해서 계속적으로 지도 단속하겠다는 것으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니다. 이 24시간 편의점하고 일반 음식점 차이가 이것이 모호하다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24시간 편의점에서도 라면이라든지 무슨 음식물을 판다 이 얘기에요. 그런데 그렇게 파는데는 시간 제한이 없고 그것보다 적은 영세 일반 음식점에서는 시간을 12시 넘으면 못 팔게 해서 그런 불공평한 제도가 어디있겠느냐 법적인 차이점은 무엇이나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법상으로는 이런 음식물을 제조판매하는 것은 조리 판매하는 것은 일반 음식점이고 그냥 만든 음식을 파는 음식 빵을 판다든지 라면을 판다든지 하는 것은 24시간 편의점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서 지금 법상으로 편의점은 규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은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 형평성에 안맞는 것 같은데 우리 법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일반 음식점과 24시간 편의점이 운영하는 것을 좀 구획을 해서 누가 봐도 이것은 24시간 편의점에서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고 일반 음식점에서 영업하는 그런 행위는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길밖에 없지않으나, 이렇게 생각해서 현재 24시간 편의점도 일반음식점도 똑같이 영업시간을 풀어야 되겠다하는 얘기는 숙단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것을 계속 지도를 해서 형평에 맞고 주민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지도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승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관동 월계동간 행정구역 조정안에 그동안 의견된 후에 진척이 어떻게 되었느냐 그리고 앞으로 대책을 밝혀라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작년에 지난번 의회때에도 얘기가 있었고 너무 우리가 지루하게 시간을 많이 끈 것 같습니다. 문제는 우리 구가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고 인근 구와 서로 연결해서 협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 같으면은 우리 마음대로 그래서 당초안대로 관철을 시켰으면 좋겠는데 또 그쪽은 그쪽으로 지역이기주의라고 할까 자기 지역의 이익을 위해서 주장하는 바도 있고 해서

그 동안 조정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현재 화랑로를 경계로 해서 구역 조정을 하자는 안이 노원구에서 채택이 되어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이 되었고 본회의에서는 상정을 해서 의결이 되면은 조만간에 구역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랑천 고수부지의 효율적인 이용계획에 대해서 언제쯤 이것이 어떤 시설이 들어오고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아주 지역발전에 질실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만아도 그 지역이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해서 인구가 많이 생기고 했기 때문에 그 고수부지를 어떻게 하면은 주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나 하는 것을 강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농구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간이 운동장등 체육시설을 설치할하기로 우리가 방침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두산아파트 입주 시기에 맞추어서 이 시설도 갖추고 해서 그 이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최대한도로 보장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석관동 골프연습장 허가를 둘러싼 그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실이 구정을 관리 하는 입장에서 몰랐다는 얘기는 변명이고 죄송합니다. 몰랐다는 자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기능을 동원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왜 당초 허가가 났으면 그 동안에 무슨 이유로 이 조건을 어떻게 붙였으며 왜 또 건축중지를 했고 이런 허가 과정이 판결이 되었는지 또 주민들의 피해를 충분히 고려했는지 그런 차원에서 감사를 실시해서 주민들이 생활피해가 되지않는 방향으로 시정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석관동에 중앙하이츠아파트를 건립함으로 인해서 이제 지하철 통과로 인한 소음이 인근 주민에게 크게 영향이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에 의하면은 소음 기준치인 55내지 65dB(데시벨)을 크게 초과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진정도 내고 우리가 또 이 문제를 내기 위해서 그 동안에 검사도 여러번 했습니다만 그런 검사나 그런 차원을 떠나서 주민들이

소음피해가 어떻게 하면은 해소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에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대책강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석관동 노인정 부실공사에 대해서 심각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회때에도 오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정릉 사회복지관 그런 전철을 밟는 그런 일이 절대 없도록 아주 근본부터 철저히 조사를 해서 아주 완벽하게 보완해서 노인정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책임지고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이연경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중암재개발 지구 북쪽에 폭 12m 도로를 개설하는데 재개발 지역에서 조합에서 부담하도록 한 조건을 이것을 완화를 해서 해주는 것이 옳지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이것은 제가 굳이 경위를 설명드리지 않더라도 의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당초에 조건은 이 지구지정하고 사업인가를 시에서 했기 때문에 그때 붙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미처 이 도로개설이 뭐 시기적으로 맞지않는데 아파트 재개발 사업을 빨리 착수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접하고 있는 폭12m 길이 230m 구간만은 우리가 부담할테니까 사업인가를 해 주시오 해서 우리가 조건을 부여해서 한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도 여러 가지 억울한 점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진정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도 참작을 하겠습니다만 또 우리가 우리 관내에는 여러군데의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비슷한 조건에 있는게 많기 때문에 형평성도 고려하고 또 이 지역에 있는 조합의 편의도 고려하겠습니다만 주민전체가 부담하는 그런 부담도 고려를 해서 형평에 맞게 가급적이면은 구의 구비를 들이지않고 주민들도 부담이 덜어지는 방향이 있으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여하간에 전부 여러 여건을 종합을 해서 합리적으로 출연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구에서 부담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단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주민들이 그런 고충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고충의 정도라든지 구의회 실정이라든지 행정여건이라든지

모든 것을 참작을 해서 합리적으로 종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로 확장공사 시행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아주 좋은 충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중앙로가 우리 성북구 관내 2대 간선도로 중의 하나인데 이번에 시비로 도로를 확장해서 중앙동을 명물의 거리로 만들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공사 시공 과정에서 관심이 많으신 의원님들께서 보시며 여러 가지로 서툴고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공동공사만 하더라도 한꺼번에 하지 않고 따로따로 한다는 것은 무모하지 않느냐 누가봐도 지적할 수 있는데 변인지역, 기술자들이 노퍽이 좁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기는 곤란하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여하간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중앙로 확장공사에 따른 제반의 문제점을 다시한번 챙겨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과감하게 우리가 고칠것은 고쳐서 명실공히 중앙로가 아주 풍물거리, 명물거리로 느낄 수 있도록 공사추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基燦 네, 심장석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잠깐만요, 방금 심장석 부구청장님 답변을 구청측 답변으로 간주하고 보충질문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李承魯議員 의석에서—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나오십시오.

(○李承魯議員 의석에서—간단하기 때문에 여기서 하겠습니다. 부구청장께서 방금 답변을 해주셨는데 본의원은 수집한 자료, 또는 질문서 요지를 토대로 봤을 때 현재 말씀하신 포괄적인 사업, 즉 다시말해서 납득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다, 감시기능을 통해서 철저히 조사해보겠다, 어차피 보충질문의 요지가 본질문 요지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실무책임을 맡고 있는 해당국장께 자세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

다.)

재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이죠?

(○李承魯議員 의석에서—답변이 전혀 안나왔기 때문에 해당 실무국장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좀 자세하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승로의원님, 이 문제는 보충질문 시간에도 충분히 답변하실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李承魯議員 의석에서—본질문의 답변을 듣고 다시 보충질문을 해야 하므로 현재 보충질문 내용이 다시 한다고 할지라도 아까 본질문 내용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질문 내용 중에 사실 그대로를 답변해 주시라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사실을 듣고 위증인가 사실인가를 듣고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都市管理局長 朴石安 이승로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 도시관리국장 소관사항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존 석관시장에 골프연습장 허가를 했다가 또 그것이 공사중지까지 시켰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나갔는지 또 중지한 사유는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건축개요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모든 자료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저희들이 골프연습장을 허가를 하기 전에 허가의 전신절차로써 건축심의를 하고있습니다. 건축심의를 건축물이 건축됨으로 인해서 건축자체에 미관이나 기능상은 지장이 없는지, 또 주변환경이나 주변 인근주택가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기술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건축심의가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골프연습장이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먼저 건축심의 신청이 있었습니다. 심의가 들어와서 도면을 검토한 결과 의원님께서도 자료에서 보셨듯이 저희들이 우선 기존건물이 오래 돼가지고 상당히 구조적으로 취약한데 여기다가 그 위에 대규모 골프연습장을 허가하는 것이

구조안전상의 우려가 심각하게 됐었고 또 골프연습장이 건립되면 대개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 조명시설이 있고 또 그 소리가 주변에 계속 나기 때문에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또 아울러서 골프연습장에 오시는 분들이 대개 차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 주변에 교통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것으로 판단이 돼가지고 최초의 심의에서는 이러한 몇가지 사유를, 다른 사유도 있습니다마는 대표적인 이러한 사유를 들어가지고 여기에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해가지고 심의에서 반려를 했었습니다. 했더니 건축을 하고자 하는 건축주께서 구조는 어떻게 보강하겠나, 구조안전사항에 기존건물과 새로 지어지는 건물의 구조안전에 대해서 구조전문가의 기술검토를 받아가지고 서면으로 자료제출을 했고 또 골프연습장 건립에 따른 주변민원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시설을 하면서 주변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최대한 시설을 보완하겠고 또 주변의 민원해소를 위해서 이웃주민들과 충분한 대화를 해서 건립을 하겠다, 만약에 이러한 시설이 불비하거나 인접한 주민들과의 대화와 설득을 못할 때는 골프연습장을 취소하고 다른 용도로 건물을 용도변경해서 전환해서 하겠다 하는 것을 처음에는 그냥 서면으로 건축주 각서를 가지고 왔는데 이 건축주 개인 각서가 지고는 우리가 공신력이 없고 믿을 수가 없다, 일단 허가를 해주고 나면 허가받기 위해서는 그런 아쉬운 소리를 하지만 허가 받고 나서는 또 다른 소리를 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못믿겠다 해서 법원에 공증을 해오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각서를, 해서 저희들이 우려했던 기본적인 사항들은 기본적으로 해소를 하고 그래서 심의회에서 건축주가 요구하는 대로 건축심의 해주고 있고 여기에 심의회 심의내용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해주었습니다. 해줬는데 당초에 심의과정에서 저희가 우려했던 대로 공사과정에서 여러 건의 민원이 접수됐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그 건물주에게 당신이 이렇게 각서까지 제출했지 않느냐, 민원을 해소해라 하고 중용

을 했습니다마는 이 민원이 공사가 진행되면서 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변에 한 450명 정도의 민원이 아울러 우리 구청에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금년 8월달에 당초 허가심의회때, 또 건축허가때 건물주가 약속했던 대로 법원에 공증까지 해가지고 제출한 각서 내용에 따라서 당신이 이렇게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주변에 민원을 야기시킨다면 공사중지를 해야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금년8월1일자로 공사중지를 시켰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현재 건축주한테 저희들이 공사중지 지시를 하면서 당초에 허가과정에서 약속했던 대로 공증각서 내용대로 타용도로 건축물을 용도변경 하도록 계속 중용하고 있고 현재 공사는 중지된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 이승로의원님께서 석관동 두산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해서 철로 소음이 증량천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아파트에서 반사돼가지고 기존 중앙하이츠아파트를 비롯한 석관동쪽으로 돌아옴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소음피해가 더 커진 결과를 초래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있는지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철도선로를 양측 사이에 두고 기존의 석관동의 중앙하이츠아파트가 건립돼있고 반대편에 두산아파트가 건립돼가지고 골조가 올라가면서 중앙하이츠아파트 주민들로부터 소리가 전보다 더 시끄럽다 하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환경과에서 소음측정을 몇차례에 걸쳐서 했었습니다. 했는데 당초에 중앙하이츠아파트 인가당시에도 소음측정을 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주택단지내에 대한 소음기준치가 있기 때문에 철도선로에 인접해서 이 중앙하이츠아파트가 건립되었을 때 소음기준이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기준치 이내로 들어오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중앙하이츠아파트 건립 당시에도 소음측정한 기록이 우리 구청에 보관돼 있습니다. 또 두산아파트 건립으로 인해서 소음이 옛날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고 해가지고 다시 우리 구청에서 중앙하이츠아파트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간대에 또 당초에 중앙하이츠아파트 건립 당시에 측정했던 위치에서 같은 시간대에 소음측정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몇 차례 측정을 했지만 현재 중앙하이츠아파트에 평소의 소음측정치는 당초 중앙하이츠아파트 건립 당시 측정치하고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큰 차이는 나지 않고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소음기준치 이내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소음측정치가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은 우리 주민들 요구에 의해서 열차통과 시간에 소음측정을 했을 때는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한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두산아파트 건립으로 인해서 직접 중앙하이츠나 석관동쪽에 얼마만큼의 영향이 커졌느냐 하는 것은 현재 기술적으로 정확한 분석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중앙하이츠아파트 건립 당시의 기준치하고 큰 차이는 없다 하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도가 통과하는 시간의 기준치는 현재 주택건설촉진법이나 관계규정에서 정한 소음치를 초과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두산아파트쪽하고 중앙하이츠아파트 주민 대표들을 두산아파트의 사업주측, 조합이나 시공자하고 건축주하고 대화를 통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중앙하이츠아파트쪽의 소음도 저감시키면서 또한 입주가 예정되어 있는 두산아파트의 소음도 저감시킬 것인지 대책회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의회가 끝나면 저희들이 양쪽 관계자를 초청해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고 또한가지 장기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계시는 이승로의원님이나 정창만의원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아는데요, 현재 철도청에서 차량 기지창 건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차량 기지창을 건설할 때는 현재 중앙하이츠 아파트와 두산아파트를 포함한 석관동 전체 지역에 대한 종합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해가지고 현재보다도 훨씬더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석관1동 노인정 보수공사가 지연됐고 또 부실공사가 되어가지고 보수공사 18개월이 지났으나 개원이 안되고 있어

서 많은 노인들이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그 원인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석관동 노인정 공사는 당초에 사업비가 저희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해가지고 공사를 두 번에 나눠서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우선 지상층만 보수를 해가지고 노인정으로 쓸려고 예산이 확보된 범위에서 지상층 보수공사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상층은 작년 12월달에 착공해서 금년 3월달에 보수공사를 마쳤습니다. 해놓고 보니까 지상층만 가지고는 노인정이 너무 좁고 현재 지하층도 그것을 수선을 하면 충분히 넓게 쓸 수 있지않나 하고 다시 문제가 제기되어가지고 지하층 보수공사는 금년 6월달에 착공해가지고 7월달에 공사를 완료한 바 있었습니다. 다만 이때도 저희가 사실은 예산이 풍족하지 못해가지고 주어진 예산가지고 공사비를 쪼개서 보수공사를 하다보니까 부분적으로 공사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고, 또 일부 지하실에 벽체를 타고 빗물이 들어온다든지 방 천정에 얼룩이 진다든지 또 방바닥에 물기가 고인다는 등에 하자가 발생했었습니다. 이 누수원인을 저희들이 몇 차례 현장을 나갔습니다만, 누수부분을 정확하게 찾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 직접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미리 타고 들어오는 것을 세밀하게 방수전문가하고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나가서 현장조사를 해보니까 지하실에서 장독대로 올라가는 계단이 1층 슬라브하고 연결되는 부분에서 그 사이를 타고 빗물이 들어오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방수에 대한 보수는 완료하고 나머지 도배등 뒷 마무리 보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작업이 한 2~3일이면 다 종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관청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이렇게 하자가 생기고 개원이 늦어지게 되어서 이용하는 주민들께 많은 피해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서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이번 기회를 거울삼아서 앞으로 관청 공사에서 절대로 이런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基燦 박석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질문에 대한 구청측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고 좀더 자세한 내용을 듣고자 하시는 의원님께서서는 보충질문 보충답변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구청측 답변에 대한 보충질문 보충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일의원님 보충질문있습니까?

(○李大一議員 의석에서-없습니다.)

이승로의원님 보충질문있습니까?

(○李承魯議員 의석에서-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李承魯議員 이승로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동료의원과 우리 부구청장님을 비롯 공무원들에게 죄송합니다 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나 질문은 질문으로 끝나서는 안되고 뭔가 의문점이 있을 때 궁금점이 있을 때는 반드시 해소를 해서 주민들에게 전달해야 할 필요가 있기에 몇가지만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중앙하이츠 소음피해는 본의원이 작년도 그러니까 96년도에 재개발과와 환경과 이렇게 세번 정도 방문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 관련된 민원이 96년도부터 제기됐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받기위해서 본의원이 세번정도 해당 과를 찾았습시다만, 당시에 거기에 관련된 환경 그러니까 소음 측정 결과가 없습니다. 우리는 보관하고 있지않습니다. 거기는 해당이 되지않습니다. 이러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기에 계시는 재개발 과장께서 이렇게 답변을 두 번 세 번 하셨습니다. 그랬는데, 다행스럽게도 거기에 관련된 자료가 소음측정한 자료가 지금 우리 구청측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니까 다행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북구청 우리 진영호 구청장께서 가끔씩은 자랑을 많이 합니다. 특히 재개발과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부분들이 여실하게 드러나서 본의원도 조금 멋적습니다. 지금까지 칭찬만 해왔는데 이런 자료 하나 왜 숨기고 안줄려고 했는지 재개발과 참 여러 가지로 작성해야 할 것 같아요. 묻고자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드리고자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을 모독하는 그런 발언이 될 것 같아서 본의원이 참겠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 기준법 당연히 본의원이 알기로는 가장 시끄러운 취약시간대에 측정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석안 국장께서 기준치가 별 차이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96년도 8월달에 측정한 결과를 보면 최고치 그러니까 가장 많게는 78.7dB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본의원 기억으로는 한 열흘전 쯤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본의원이 그에게 그 자료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약 한 76.7dB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기준치가 야간에 55, 주간에 65dB이라고 그러면 기준치보다 약 10이상 차이가 납니다. 사실 본의원도 거기 가서 현장 확인도 해봤고, 본의원이 거주하는 곳이 바로 인근이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다. 이를테면 봄에나 여름이나 가을에는 창문을 열어놓고 전화받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자료가 부실하다고 했을 때는 우리 구청에 소음측정기 다시 재측정을 한다든가 아니면 주민들께서 사설기관에 의뢰를 해서 재측정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두산아파트도 입주 동시에 상당한 민원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인근에 아까 본질문에 말씀드렸듯이 6호선 지하철이 곧 내년이면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화랑로에 고가도로도 개통이 돼요. 그렇다면 보면 현재보다 더 이상치로 소음에 많이 시달릴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까지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개발에서 골프연습장하면 북악골프연습장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본의원이 언급하는 골프연습장까지 참으로 골치아픈 것이 골프연습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시 묻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현재 공사중지 지시가 내려졌습시다. 그러면 현재 본의원이 볼때는 그 민원은 주민들한테 절대 설득이 안될 것으로 보아져요. 주민들의 저항이 강력합니다. 그

렇기 때문에 현재 민원이 해결이 안됐을 때 그 용도를 공증 각서한 내용대로 다른 용도로 사용케 할 것인가, 그렇다면 골프연습장을 짓기위해서 현재 본의원이 불때는 적게는 몇 천만원에서 많게는 몇 억이 투자된 것으로 현재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골프연습장 시설을 짓기위해서 시설투자를 했는데 다른 용도로 사용해라 했을 때 과연 그 건축주께서 쉽게 수급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가 상당히 대두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러니까 민원해결이 안됐을 때 앞으로 끝까지 이것을 골프연습장은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대책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리고 공사지시를 내린 부분에 대해서는 본의원이 상당히 오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본질문에서 말씀드렸듯이 당연히 알아야 되고 당연히 주민들에게 알려줘야 될 그런 의무가 있기에 자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자료가 신청한 그 다음날부터 집요하게 본의원에게 전화공세를 해서 자꾸 귀찮게 한다든가 아니면 본의원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지됐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95년도 96년도 구정질문을 많이 했습니다만, 묘하게도 도시관리국에서 그런 일이 항시 새어 나오고 있습니다. 새어나간다는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몇가지 사례를 들어볼게요. 작년도에 상월곡동 구재영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이 그 다음날 아침에 바로 주민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또하나 정릉에서 포장마차 길거리 가건물 치우라고 하니 그 다음날 그 민원인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어느 모 의원 때문에 우리는 봐줄려고 하지만 봐줄 수가 없다 또 작년 12월 본의원이 석관동 재건축에 관련된 코오롱아파트 재건축에 관해서 민원을 제기 함으로 그 다음날 또다시 그런 내용을 주민들이 먼저 알고 와서 의원이 구청에 와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지 않느냐 그런 것들이 사실 또 밝혀졌어요. 공무원들이 직접 와서 주민들한테 그렇게 했다는 것이 사실로 증명이 됐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도시관리국에서만 유독 이런 일들이 계속 빈번하게 발생이 되는가, 그리고 아까 부구청장께서 감사기능을 통해서 조사

한다라고 했습니다. 본의원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에 대한 결과 확실하게 결정을 지어서 결과를 보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중앙 하이츠 아파트 아까 소음에 대해서 말씀 한가지 빼먹었는데 지금 인근에 석관중학교 석관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있는데 석관중학교 고등학교 앞에는 두산 아파트와 같은 그런 건축물이 없고 없는데도 학생들이 공부 학습에 방해가 되므로 기준치를 초과 함으로 인해서 거기다가 방음벽을 현재 설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하이츠를 비롯 인근의 주택가는 앞에 두산 아파트의 건축물이 높게 약 한 25층 28층이 서있으므로 얼마나 시끄러울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능히 짐작이 가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방금 미비했던 부분 도시관리국장께 다시 그 답변을 요청함으로 답변을 주세요. 이상입니다.

○議長 趙基燦 네, 이승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연경의원님 보충질문있으십니까?

(○李鍊垈議員 의석에서-네, 있습니다.)

나오십시오.

○李鍊垈議員 지난 번 구정질문 때도 정릉천변 도로확장공사 건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서류로 답변을 해 주기로 해놓고서는 지금까지 답변을 못 받았습시다. 지금도 제가 질문을 몇가지 했습니다마는 민원처리위원회에서 민원인을 출석시켜가지고 의견청취를 들은 다음에 재심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답변하고 또 법규에도 어긋난 사업승인 조건을 확대해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확실한 답변과 앞으로의 대책 이런 것들을 제가 물었는데 확실한 답변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시다. 그리고 제가 지금 자료가 몇가지 있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에서 각 구청에 보낸 업무지시랄지 주택건설계획승인에 따른 업무지시, 또 시에서 행정지시로 내려온 것이 있고 또 구청장이 동장에게 도로개설요청에 대한 협의 회신이란지 또 중기재정계획 아파트 조건부 승인, 취소 결정 이런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시간이 많이 걸린 관계상 이것을 청장님에게 직접 답변을 듣고자 했습니다마는 진영호 구청장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 내용을 충실히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담당국장께서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都市管理局長 朴石安 좌석에서-네, 알았습니다.)

○議長 趙基燦 이연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보충질문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장」하는 이 있음)

김남효의원님 나오십시오.

○金南孝議員 시민복지위원회 김남효의원입니다. 방금 이승로의원님 질문 중에서 석관시장, 골프연습장 설치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지라도 지금 현재 실시중인 골프장이 중단된 상태에서 만약에 세월이 좀 흘렀다든지 어느 여론이 잠재워졌다든지 했을 경우 다시 재시공될 공산이 크기 때문에 염려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추가보충질문합니다. 석관시장에 대한 보충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석관시장은 69년도에 개설된 재래시장입니다. 석관1동과 석관2동의 중심지에 자리잡으면서 바로 석관국민학교에서 불과 100m정도밖에 되지 않는 위치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아직 수많은 재래시장이 남아 있지만 아직 이곳 석관시장 만큼 낙후되고 죽어있는 시장은 없을 것입니다. 시장개설 이래로 초창기에 많은 영세상인들이 활기차고 왕성한 시장경제가 이루어졌을 때는 나름대로 상인들의 부를 축적해 나가면서 열심히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이라고 단정지을수는 없지만 시장대표이사가 부자지간에 대물림으로 바뀌면서 하루가 다르게 시장은 침체되고 급기야는 영세상인들이 많은 기득권을 포기하면서 까지 아예 나가버리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이 장사를 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국가적으로 총체적인 경기 침체 영향도 있었겠지만 그 보다는 시장 자체에 업주의 경영체제 문제점이 상당히 더 있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장이라는 개념은 원래 많은 지역서민들이 애용하는 공공적인 장소로써 업주는 반드시 서민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하지 않는 최대한의 서비스 차원에서 시장 경영을 운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

니다. 그런데 상인들이나 주변 사람들의 여론의 말에 의하면 업주는 대부분의 시설을 투자하는 영세상인들한테 직접 투자하도록 강요할 뿐 아니라 해가 바뀔때마다 과도한세를 인상시키는 등 많은 영세상인들의 시장 친목단체 상회마저 해체되면서 고충과 애환을 많이 늘어놓곤 합니다. 이런 보이지 않는 업주의 횡포와 악덕업주로서의 이미지가 이미 심어져 있는 여론인 만큼 저 역시도 그 시장에서 사업을 과거에 했던 경험에 있어요. 이러한 사항을 충분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본의원도 생각할 때, 이곳 석관동은 약 5만명에 육박하는 인구로써 동대문구,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 여러 구와 인접된 연결된 곳으로써 엄청난 교통난과 환경문제가 심각합니다. 더군다나 화랑로길 6호선 전철공사가 시작되어가지고 더더욱 혼잡하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 시장 앞에 청량리하고 이문동하고 연결되는 이문동길에 출퇴근 시간에 한 번 와서 보세요. 보통 차량행렬이 100m는 기본이고 200m까지 밀려있는 상태에서 이 석관시장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좌회전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한 1km이상을 돌아서 시장을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 이렇게 대단한 위험성이 있는 데도 여기에 골프장이 설립된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30년이 다 되어가는 이 노후 건축물 에다 골프연습장 자체가 들어선다는 것은 건축물 안전성 문제도 문제지만 소방도로, 국토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엄청나게 제기되고 있고 본의원으로서도 골프장 허가 자체가 이미 나왔다는 데 사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재 이런 말까지 들고 있어요. 보통 주민들이 과거에 돈많은 백줄이 들어와서 무작정 허가를 낼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런 말이 통용될 수 있다는 사실, 그러나 주민들은 이런 말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 돈 많고 줄이 좋아서 허가가 났나 보지 뭐. 이것 참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의 주민생활과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노력

해야 할 때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일개 한 개인의 이익만을 생각해가지고 이런 허가가 나왔다는 것은 가뜩이나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시장이 자리잡고 있는데 수많은 지역 주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로밖에, 엄청난 사태발생으로 확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책임을 누가 어떻게 질 것인가, 사태 확산이 더 커지기 전에 어떻게 수습하고 처리하고 대책할 것인지를 명확한 답변을 오늘 확실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基燦 김남효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세분의

(○李鍊炯議員 의석에서—제가 조금 빠진 것이 있어가지고 한마디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주세요」하는 이 있음)

거기서 하시겠습니까?

(○李鍊炯議員 의석에서—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간단히 해 주십시오.

(「누구는 보충질의 두 번씩 주고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하는 이 있음)

○李鍊炯議員 죄송합니다. 아까 답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간단히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앙로 확장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과 민원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인가 하는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議長 趙基燦 구청측 보충답변 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의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의가 없으시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20分 停會)

(16時50分 續開)

○議長 趙基燦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 세분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석안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都市管理局長 朴石安 먼저 이승로의원님께

서 중앙하이츠 아파트의 소음 피해와 또 지하철 6호선과 도시고속화 도로 개통에 대비한 두산아파트의 소음절감 대책 그리고 기존에 소음측정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제출을 요구하셨고 이것을 다시한번 주민들 입회하에 재측정해서 분석을 하고 대책을 세워줄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저희들이 중앙하이츠 아파트 건립당시에 중앙하이츠에 허가를 위해서 소음측정한 자료와 또 현재 그 소음측정치를 주민입회하에 필요하면은 우리 주민들 대표를 입회시켜서 또 시간이 있으시면은 의원님 입회하에 주민참여하에 재측정하도록 하고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두산아파트가 입주되었을 때 주민들도 우리 주민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지적하신 대로 소음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승로의원님과 김남효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그 골프연습장 허가관련과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다는 사항을 전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처음 질문하셨을 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구청에서도 여러차례 걸쳐서 심의를 했고 심의를 하면서 관계 전문가들이 전부 현장까지 나가가지고 답사를 했었고 하면서 이러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조안전상의 문제, 교통상의 문제, 또 주변 주민들에 대한 피해등이 우려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도 이것은 허가를 해 줄 수 없다고 당초에 판단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지방자치제가 시행되면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까 일부 허가 과정에서 민원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허가를 안해 주는 경우에 법원이나 이런쪽에 행정심판으로 가든지 행정소송으로 가면은 법에 적합하면은 허가를 해 줘야지, 민원이 있다고 해서 허가를 안해 주는 것은 부당하다 하는 판례가 연일 신문과 방송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불만도 있고 고충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지혜를 썼고 연구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런 부분을 민원

이 우려되니까 허가를 안해 준다고 했을 때는 저쪽에 건축하고자하는 사람은 분명히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들어올 것이 우려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법원에서 행정심판이나 행정판례를 받아가지고 법에 정당하다면 허가를 해 줘야 된다는 판결이 요즈음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떨어졌을 때에는 저희가 허가를 안해 줄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지혜를 짜고 연구를 해 가지고 이러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에 갔을때에도 우리가 좀더 유리한 지위에 서기위해서 본인 스스로로 하여금 법원에 공증을 해 가지고 오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지금 만약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청구한다면은 본인 스스로가 각서를 공증까지 해 가지고 제출했기 때문에 이것은 본인책임이다 하고 책임을 저희가 우리 행정부쪽에서 지는 것보다는 그쪽에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다하는 나름대로의 지혜를 짜고 연구를 해서 허가 조건을 붙여서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의원님들 질의하시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특정인의 권익을 대변해 주고 특정인과 결탁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까지를 제기했습니다만 저를 비롯한 우리 공무원들이 이런 공증각서까지 받아서 허가처리해 주면서 그것을 그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과 유착하거나 비리에 관련되었을리는 추호도 없다고 저희는 확신합니다. 물론 아까 부구청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기능에서 충분히 감사를 할 것이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은 옹당의 처분을 할 것이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또 김남효의원님 질의하시면서 이 사람이 지금까지 막대한 시설투자를 했고 또 이 시설물이 절대로 주민 동의를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고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린대로 이것은 어디까지나 본인 스스로가 공증을 했고 우리한테 공증을 해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될 사항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구청에서 지금 본인한테 도

저히 민원 설득은 안될 것으로 보고 민원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니까 당신이 순리적으로 우리 구청에 허가때 약속했던 대로 타 용도로 쓸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제출은 안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남효의원님 지적하신대로 만약에 현재 공사한 상태에서 공사진행도 안되고 장기간 방치했을 때 새로운 도시의 흉물이 되고 또 안전관리상의 문제가 있지않겠느냐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전관리와 주민들 또 주변 경관에 나쁜 영향을 주지않도록 계속적인 행정지도를 해 가지고 빠른시일내에 적법한 건물로 주변에 피해도 안주고 본인에게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공사가 마무리 되고 종결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연경의원님이 보충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서면으로 답변 자료 제출을 요구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세분의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議長 趙基燦 네. 박석안 도시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 있으면 서면으로 요구를 해서 답변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문순서에 의거 정창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昌萬議員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석관 1동 출신 지역개발위원회 위원장 정창만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정질문에서 행정개선적 측면과 미래지향적 성북건설에 보탬이 되기 위한 몇가지 방안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성북구청에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청소 행정분야가 되겠습니다. 청소행정분야가 여러 가지 문제점과 운영상에 또는 제도상의 현안들을 가지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쓰레기 수거 반입 수수료 문제와 쓰레기 수거에 대행업체 용역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96년도 쓰레기 수거 반입수수료는 8억 9,472만원인데 거기에 비해 97년도 예산편성에서 보면 12억 6,975만 2,000원이고 이번 추경에 8억 1,

438만 6,000원 총계 21억 8,413만 8,00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약 3배 가량 증액되었고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은 현재 성북구청에서 1개동에 인건비 없이 사업비로 2개월에 약 4,500만원씩 지출됨으로 연간 약 5억원의 예산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반면 성북내에는 대행업체가 2개 회사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97년도 1개 업체에서 쓰레기 반입료를 구청에다가 1개월에 약 2,000만원씩 지불하고 연간 총액 2억 4,000만원이 되고 2개 업체에서 지불한 금액은 연간 4억 8,000만원 약 5억원이 됩니다. 97년도 예산 추경포함 쓰레기 반입수수료 총계 21억 8,413만 8,000원인데 성북구청에서 4.5개동만 대행업체 용역을 주면은 구예산 쓰레기 반입수수료 21억 8,413만 8,000원을 전액 낭비하지않고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96년도에 본의원이 97년도 본예산 심의 구정질문에서 쓰레기 수거대행업체 용역문제에 대하여 질문하였던 바 97년도에는 미화원 축소가 되는데로 대행업체에 용역을 준다고 확답을 해 놓고 여지껏 대행업체에 용역을 안주고 예산을 낭비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용역을 줄 것인지 안줄것인지 확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96년도 이후 97년도 현재까지 퇴직한 미화원은 몇명이며 현재 인원은 몇 명인가도 답변해주시고 쓰레기 수거 반입료는 1ℓ당 얼마인가 아울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문제는 전의원이 했기 때문에 안할려고 했는데 확답이 나오지않고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한테 양해를 받으면서 구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석관1동 노인정 보수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석관1동 노인정은 석관동에서 최북단 석계역앞 노인구월계동 경계에 건물이 걸쳐져 있으며 오래된 콘크리트 건물로 낡아 있어 그 동안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숙원인 노인정 부지구입을 바라던차 96년도 예산이 편성되어 오래된 가정주택을 구입하여 그 동안에 적으나마 숙원을 풀었습니다. 그러나 오래된 가정주택이다보니 노인분들이 기거할 수 있는 넓은 공간이 없어 보수공사를 시작하였

습니다. 1차 보수공사가 96년도 12월 10일 서부터 97년도 3월 30일까지 예산 3,184만 8,731원을 투입하여 공사를 하였던바 지중에 보수가 안되어서 2차로 지하층 보수와 97년 6월 19일 97년도 7월 10일까지 1,795만원을 투입하여 보수함으로서 총 4,979만 8,731원 약 5,000만원을 들여 보수공사를 완료하고 준공을 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층 보수공사를 할 때 본의원은 건축과에다가 철두철미하게 설계하고 오래된 건물지층이기에 지하 전체를 방수하여야 한다고 누차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출한 설제도면을 보니 일부만 방수 설계가 되어있어 잘못 설계되었으니 전체를 다 하라고 했으나 건축과 직원 설계사가 확실하게 설계했으니 염려말라고 하기에 그럼 책임을 질 수 있느냐고 묻자 이번에는 틀림없다고 관계공무원이 답변하여 어리석게 믿어 버렸습니다. 웬걸 공사가 다 끝나고 나서 97년 말경 비가 많이 왔습니다. 본의원은 97년도 8월 5일 현장을 답사한 결과 방수가 안되어 바닥 전체 여러곳에서 물이 새어 들어오는 것을 목격하고 그 이후 관계공무원에게 재방수 시공해 줄 것을 몇차례 통보와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그냥 방치만 하고 있다가 이 며칠전에 가정복지과 계장과 석관 1동 동장이 와서 일단 노인네들을 입주시키고 나중에 고치면 안되겠냐고 하니 노인들이 이것을 용납하겠습니까? 본의원도 안된다고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공무원이 안일무사하고 방치만 하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도대체 이래도 되는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2차에 걸쳐서 보수했다는 것이 이렇게 부실공사를 했다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며 또한 이렇게 부실공사를 한 것을 준공을 필하였다니 어이없고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감리 감독도 문제이지만 이래서 관급공사 즉 정릉북지관이나 월계동 체육관등 관 주도 공사에도 많은 하자가 자꾸 생기는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무덥고 긴 여름도 지나고 이제 북풍에 찬바람이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우리들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편히 쉴 수 있는 터전을 물속에서 편안히 쉬라는 것입니까? 구

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이 지금 안계시니까 그렇지만 관계공무원은 하루빨리 전면 재방수 재시공완료해 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로는 97년도 8월 5일 촬영한 사진 아홉장과 설계 도면 일부를 제출하겠으니 답변하기전 세밀히 검토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후된 건물이나 웅벽 및 축대 건물 기울기 측정기, 일명 수평가능자 설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성북구는 구릉지역으로 되어있어 축대나 웅벽 노후된 건물이 많이 있어 해동이 되면 우설 또는 우천시 예상치 못한 붕괴사고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한 예로 얼마전 한신아파트 웅벽장위동 축대가 무너져 인명, 재산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정릉스카이라파트나 월곡동아파트 같은 건물은 금이 가고 건물이 노후되어 기울어 재건축을 하려고 해도 그린벨트나 D급판정을 받아서 재건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언제 어느때 웅벽이나 아파트 밑 건물이 붕괴될지 모르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시정일보 97년도 8월29일자 기사화된 부산 사상구에서 건물기울기 측정기를 설치했다는 기사를 보고 우리 구에도 설치해야겠다는 생각에 사상구에 연락을 하여 구입처를 알아보아 전자식 균열진행측정기 팜플렛 및 수평가능자 견본 하나를 4만원에 구입해 가지고 왔습니다. 성북구청이 시설물 안전점검 및 재난방지를 위하여 과학적인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을 것이고 건물기울기 측정기 및 전자식 균열진행측정기를 이용 붕괴등 재난위험이 예상되는 건물이나 웅벽에 설치하여 항상 수평가능자 진행상태를 확인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 재난 사전예방과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으며 건물기울기 측정기 설치로 미세한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고 특히 건물관리자나 주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안전의식 고취 및 대비능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본의원이 제안하는 건물안전 전자측정기는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성북구에도 우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물기울기

측정기 설치를 활용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한 성북구 내에 위험한 건물 및 웅벽이나 축대는 몇 군데나 되는지 이번 기회에 확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97년 6월경에 성북구청에서는 이러한 여러 가지 측정기를 구입하려고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왜 취소되었는지 아니면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석관1동의 노인정 보수공사의 도면과 사진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관계관은 가지고 가서 답변자료에 쓰십시오. 지금 건물안전측정기에는 제가 견본으로 구입해 온 것이 이것입니다. 이것과 시정일보에서 나왔던 신문기사입니다. 다음은 전자식 균열진행측정기는 이게 220만원 돈이랍니다. 그래서 사비를 주고 살 수가 없어서 팜플렛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가져가지고 점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돈암3-2, 돈암3-3 재개발구역 경계 중간에 웅벽을 계단식으로 절개하여 인공폭포를 설치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돈암3-2, 돈암3-3 재개발지역은 미아리고개라는 명칭이 붙어있어 서울에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한 지역입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면 6.25 당시 우리의 부모 형제가 철사줄로 뽕뽕 묶여 이북으로 끌려가던 영영 돌아올 수 없는 한많은 미아리고개이고 또한 성신여대 쪽 산기슭에는 우리들의 부모 형제가 끌려가다가 수백명, 수천명이 학살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북구에서는 미아리고개 확장공사와 동시에 미아리고개에다 우리들의 부모 형제와 조상들의 얼과 한을 달래기 위해서 구름다리를 설치하고 성곽과 노래비, 추모비를 세워 유적지로 만들어 놓았는데 재개발로 인하여 산중턱이 절개되고 아파트가 건립됨으로써 옛날 모습을 찾기가 힘들어진 상태입니다. 또한 이 곳은 북악스카이가 길 구름다리로 통과하여 개운산으로 관통하는 길인데 돈암동 3-2 돈암동3-3 재개발로 인하여 산이 양쪽으로 절개되어 자연과 환경이 파괴된 상태이며 3-2는 웅벽길이가 2,414m이고 높이는 24.3m나 되고 3-3은 웅벽길이가 1,024m나 되는 엄청난

절벽 속에 아파트가 건립되고 그 밑으로는 그 북악스카이 길이 통과하고 있는 실정이라 아파트 주민과 그 길을 통과하는 차량 및 통행차는 위험속에 불안과 초조, 위압감과 혐오감 속에서 살고 또한 지나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돈암동3-2, 돈암동3-3 경계 중간부분을 계단식으로 절개 완화하여 인공폭포를 설치, 주민들의 위험속의 불안과 초조, 위압감속에서 해방되어 안정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미아리고개 유적지를 발돋움 할 수 있는 명승지로 만들 용의는 없으신지, 현재 서울에는 이러한 지리적 여건을 활용하여 인공폭포를 설치한 곳이 많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면목동과 중곡동 사이에 걸쳐있는 용마산의 인공폭포가 멋지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기왕에 미아리고개를 주민 휴식공간으로 발전시킬 생각이라면, 그리고 서울의 명소로 가꾸어 나갈 생각이라면 본의원이 제안한 이러한 시설물을 설치할 용의가 진정 있는 것인지 구청장의 확실한 의지를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議長 趙基燦 네, 정창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전에 심장석 부구청장이 요통이 심해가지고 치료차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최계락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바랍니다.

○崔桂洛議員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소속 최계락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성북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내외 자매결연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성북구에서는 과거 동사무소와 도농간 자매결연, 또는 새마을단체와의 자매결연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95년부터 구청이 직접 강원도 영월군과 전라남도 담양군, 그리고 금년 9월25일에는 경기도 이천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였으며 96년10월25일에는 성북구와 중국 북경시 순의현과의 국제우호자매결연 조인식을 체결하고 지난 7월15일에는 우호교류 대표단 17명이 순의현을 방문한 바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 모

스크바 동북구와의 교류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국외와의 교류는 엄청난 경비가 수반될 것이며 성북구의 실익은 무엇인지의구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매결연사업 추진실적 성과와 예산지출 내역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향후 연간 소요 추정예산에 대하여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북구에서는 국외자매결연 추진사업과 관련 북경시 순의현을 두차례 방문하면서 방문대표단에 공무원 외에 경제인 대표, 언론대표 인사 등이 동행하여 방문하였는데 민간인 인사의 신원, 인적사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행 방문인사 중 전과가 있거나 사회적 지탄을 받고있는 인사가 있다는 사실 여부에 대하여 본의회 행정위원회에서 지난 9월26일 거론된 바 있으나 명확한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바 해외 참석 동행 민간인 인적사항을 신원확인 첨부하여 서면제출 요청합니다.

또한 96년10월 성북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북경시 순의현과 우호협정 체결조인식을 갖고 종로구 소재 하림각에서 기업인과의 만찬간담회에 초청된 기업인까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청의 각 직능조직의 실효성 여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위촉하고 있는 각 조직 자문위원회, 각종 심의위원회, 체육회 등 운영실태와 성과 및 예산지출 현황을 밝혀주시고, 참여인사의 신원적격여부 확인 인적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基燦 네, 최계락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최동환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崔東煥議員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위원회 월곡1동 출신 최동환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어제 우리 구정질문을 시작하면서 본의원이 의사 진행발언을 통해서 본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질문내용이 정책적인 질문이 많음으로 해서 구청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듣

고자 구청장의 출석을 정식으로 요구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구청장께서는 오전에 한번 답변하시고 본회의장을 떠났습니다. 따라서 혹시나 본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공색한 변명으로 마무리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의원은 민선단체장 출범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 지방자치틀 다시한번 생각해 봄으로써 앞으로 더욱 발전하는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구정질문을 준비하였습니다. 두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진지하고도 솔직한 그러나 희망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구청의 자금 관리 운영에 대한 질문이고 두 번째는 앞서 이대일의원께서도 언급하신 바 있는 자원회수시설 즉 쓰레기 소각장건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지방자치의 현실은 오래전부터 내려온 행정조직, 인원, 업무체계를 그대로 두고 간판만 바꿔달은 형편이어서 지방자치 실현에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막상 지방자치하에서 자기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검토하고 재정립할 기회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의 경우도 특히 인원의 효율적 재배치 등에 대한 고민은 말할 것도 없고 주어진 예산을 짜임새 있게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있지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느냐, 어떻게 하면 서울시 교부금을 더 많이 받아내느냐가 더 중요한 관심사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를 행정의 관리체제로 보지않고 경영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금의 운영도 이제는 중요한 사업으로 바라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그동안 묵히고 있던 우리 구 금고의 자금관리 체계에 대한 몇가지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해결방안에 대한 구청측의 진지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의 자금관리 실태가 어떠한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64조 금고 설치규정에 의해 3년간의 금고계약을 체결한 상업은행은 이미 80년 이상을 서울시와 서울시 각 구청의 금고업무를 독점해

오고 있으면서 막대한 이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서울은행이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업무에서 나온 여신규모가 상업은행의 총여신규모의 약 30%에 이른다고 하는 사실이 이미 밝혀졌습니다. 상업은행이 구금고업무를 대행하면서 막대한 이득을 챙긴다는 사실은 몇가지 사례로 알수가 있습니다. 구청의 자금이 공공성 자금이라는 이유로 시중은행이 제시하고 있는 저축성예금의 금리와는 비교도 안되는 낮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음은 말할 필요도 없이 구 금고의 월평균잔액이 150억 정도가 평균 연리 6.46%로 맡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재무과는 우리구 자금을 상업은행 보문동 지점 출장소에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1억원 단위로 1개월, 3개월, 12개월 단위로 정기예금에 가입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금 지출에 대한 분석이 안되니까 대부분의 자금을 3개월짜리 정기적금에 가입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구가 받고 있는 상업은행의 정기예금 이자는 97년 현재 1개월 연리 5%, 3개월 연리 7.1%, 6개월 연리 8.5%, 12개월 연리 10%입니다. 그나마 이조차도 지방자치가 되면서 여기저기서 문제점을 지적하자 최근에서야 상향조정된 금액인 것입니다. 현재 우리 구 자금이 3개월 정기적금에 가입을 해놓고도 6개월 심지어는 1년이 넘도록 그대로 방치해두는 사태가 발생함으로써 3개월 이자율 7.1% 로써 6개월 1년동안을 맡겨두는 꼴이 되어 이자율 손실은 그대로 상업은행 몫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자금 운영은 어떠한 구체적인 데이터나 과학적인 계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자금담당 직원들의 전문성 결여도 문제가 되겠지만, 기존의 업무영역의 문제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예산의 편성 및 배정을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와 수입을 담당하는 세무관리과 그리고 지출 및 자금 운영을 담당하는 재무과가 서로 별개로 움직이는 불합리한 회계체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직의 부조화로 자금의 예치기간을 예측하지 못하고 실제 예치기관과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단기이자율

을 적용받음으로써 오는 손실과 자금 사용 시기 등을 파악하지 못하여 어쩔 수 없이 중도해지를 해야 하는 그림으로써 오는 이자액 손실은 적은 액수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구 예산의 편성과 배정은 현재의 자금 사정이나 미래의 수입에 대한 예측과는 무관하게 집행시기에 대한 조정없이 예산 범위내인지를 확인하는 정도에서 이루어짐으로써 현금수요 예측과 자금의 운영을 어렵게 하고 있으며 세입의 자금조달측면은 구체적인 목표를 갖지 못하고 전체 자금관리와는 따로 놓고 있습니다. 예산과 세입 세출이 통합적인 관리 체계하에서 서로 조정 통제가 이루어 져야 자금 관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상업은행의 서비스 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5월1일자로 3년간의 구금고 계약을 재계약 체결한 상업은행은 대 고객이라 할 수 있는 성북구청을 과연 고객으로 생각하고 있는지가 의심스러울 정도로 무사안일하고 불친절하고 질 낮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상업은행 보문동 지점은 성북구청의 공공자금을 관리하면서 공공자금을 관리하는 공공성의 충족은 고사하고라도 일반인에게 하는 정도의 서비스조차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일반기업에는 제공되는 자금 흐름의 정보라든지 거래 사항에 대한 통계자료 조차도 제공하고 있지 않은 형편입니다. 또한 지난해 구의회 정기회의에서 본의원의 지적에서도 밝혔듯이 서울시 금고에 대한 우대금리를 우리 구에는 1년 동안이나 숨기고 금리인상 사실조차도 밝히지 않고 예전 금리를 적용시켰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담당공무원 조차도 서울시의 금리인상 사실을 몰랐다고 발뺌했습니다. 결국 우리 구는 1년 동안 예전 금리를 적용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한 이 손실도 상업은행으로 고스란히 들어갔습니다. 단골고객에게 좋은 거래조건을 제시하는 일반적인 은행의 상도의마저 무시하고 무차별하게 부당이득을 노리는 상업은행의 이러한 형편은 공공자금을 관리하는 은행으로서의 취할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경쟁이 보장되지 않는 수의계약에 의한 독점적 지위확

보로부터 오는 상업은행의 부당한 횡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구자금의 회계별 관리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상업은행에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할 것 없이 똑같은 금리로 맡겨놓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부당합니다. 내무부는 지침으로 구금고를 단일화 시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할 것 없이 하나의 금고에 보관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은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한의 침해임은 말할 것도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에 대한 인식의 부족에서 오는 불편부당한 지침인 것이므로 무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무부와 우리 구청 재무과는 한 목소리로 금고의 단일화에 대해 구자금의 공공자금으로서의 안정성 확보와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과 법규정을 무시한 발상입니다. 우리 구의 현실은 일반회계는 재무과가 특별회계와 기금은 해당부서에서 각기 별도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렇게 비현실적인 이자율을 적용받고 있는데 뭐가 현실적이며 자금 운영에 대한 분석조차 못하고 있는데 어떻게 통합관리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말문이 막힐 따름입니다. 또한 구청 담당자는 자금 운영에 대해서 안정성만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상업은행의 정기에금이 다른 은행의 높은 이율을 주는 저축성 예금을 비롯한 다양한 신탁 예금보다 더 안정적이라는 증거를 대지못하면 그 말은 더 이상 거론하지 않도록 권고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3조에는 금고업무 일부 대행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구와 계약을 맺은 금고로 하여금 다른 은행이나 새마을 금고, 신용협동조합 등에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무부의 금고 단일화 지침은 잘못된 것이며 더욱이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방자치 단체가 두 개 이상의 금고와 계약을 맺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별도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본의원의 주

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상업은행을 다른 은행으로 바꾸기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선 특별회계와 기금만이라도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역경제의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우리 지역의 새마을 금고와 신용협동조합 등에 맡겨 놓을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이 자금의 수익성을 추구해야 하는 것에 대한 학계의 의견도 동일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하는 것이므로 구청이 자금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자체로서 공공재산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들이 재정수익을 올리기위해 민간의 용역까지 침해하면서 수익사업을 하기 보다는 우선 구 자금의 적절한 운영을 통해 이자수익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며, 민선단체장이 출범한 이 시점에서는 자금은 안정성 확보와 더불어 수익성 제고라는 두가지 목표를 명확히하여 여유자금 운영에 대한 원칙을 세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청측에 질문합니다. 본의원은 생선을 물고 도망가는 고양이만 육할 것이 아니라 생선을 지키지 못하는 생선가게 주인도 각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우리 구도 상업은행이 자본의 논리에 충실하듯이 우리 구도 자본의 논리에 충실한 전문가를 채용해 고양이를 잡든지 생선을 잘 지키든지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무국의 재정담당 전문가를 채용해 구자금의 실질적인 통합관리에 만전을 기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지원하고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2조 2항에 명시되어 있는 대로 금고업무에 관한 우리 구의 원칙을 정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쓰레기 소각장건설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제60회 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에서도 이미 언급한 바 있는 자원회수시설 즉,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 관련하여 다시한번 구청측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질문을 합니다. 먼저 소각장 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그 추진과정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우리 구는 서울시의 1구 1소각장 정책에 맞춰 이미 지난해부터 계획을 세워 소각장 부지선정을 위한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을 극동건설에 의뢰 3,600 여 만원을 들여 내부적으로는 어느정도 입지선정이 마무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지난 구정질문에 대한 구청측의 답변은 쓰레기 소각장의 당위성에 대한 몇가지 언급이 있었는데 서울시에서 2001년까지 부지선정을 완료한 구에 대해서는 건립비용을 전액 시에서 부담한다는 결정 때문에 서둘러 입지선정을 하지 않으면 자칫 건립비용을 구에서 부담하게 될 지도 모른다는 우려 때문에 2001년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부지선정을 완료해야 한다는 것과 쓰레기 소각장 건립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구에 대해서는 쓰레기 반입을 중단시키겠다는 김포매립지의 결정 때문에 우리구로서는 어쩔 수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쓰레기 소각장 부지 선정만큼은 밀어부치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웃 일본의 경우만 해도 쓰레기 소각장 부지선정에 10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자치단체가 많았습니다. 땅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바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심사숙고 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구의 소각장 부지선정 과정도 바로 그러한 논의의 과정을 충분히 거친후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소각장 부지선정을 전면 유보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관계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도 지금 소각장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쓰레기의 약 74%를 소각처리하는 일본은 다이옥신이라는 청산가리의 1만배나 넘는 맹독성 발암물질이 소각장에서 발생된다는 사실이 알려지기 전부터 소각장을 건설하기 시작하여 현재 전체 1,850개의 소각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m³당 0.1ng 기준으로 다이옥신 발생량을 조사한 결과 72개소에서 폐쇄조치등 긴급한 대책을 요하는 기준이 되는 80ng을 초과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무려 990ng을 기록하는 소각장도 있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참고로 다이옥신 1ng이 1,000마리 소 중에서 500마리를 죽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지난 3월 우리 구에서는 일본의 쓰레기 소각처리시설을 견학하고 온 바가 있습니다. 견학 후 발간한 보고서에는 다섯곳의 소각장을 방문하고 온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잘되는 소각장만 보고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되어 있는 소각장에는 근처에도 가지 않았기에 과연 그러한 견학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본의원은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현재와같은 소각 방식을 고집하는 소각장을 계속 건설한다면 다이옥신 문제는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 환경전문가들의 판단이고 보면 석쇠위에 폐기물을 올려놓고 태우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 스토카식보다 더 앞선 기술이 현재 개발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각을 할지라도 다이옥신 최소화하는 방식을 택해야 할 일입니다. 1구 1 소각장 정책도 탁상공론에 다름아닙니다. 서울과 같은 대기가 불안정한 지역에 25개 구청에서 하나씩의 소각장을 만든다면 그야말로 서울은 사람이 살기 힘든 도시가 될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아직도 서울시가 1구 1 소각장 정책을 버리지않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장이 필요하다면 지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재활용 정책이 정착이 되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문제가 정착이 되고 난 이후에야 본격적인 소각장 건설 논의가 되어야지. 그렇지않으면 재활용품 음식물 쓰레기마저도 소각장으로 들어가서 다이옥신의 발생양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최근 언론의 보도에서 인근의 노원구와 강북구와 협의하여 노원에서는 쓰레기 소각을 강북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각각 맡아서 해결하기로 했다는 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해결방법도 강구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끝으로 올 4월 15일자 성북신문 1면 머리기사에 실린 소각장 정통 산 89-1번지 물망이라는 제하의 기사에 대한 구청의 명확한 경위와 추진 배경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이 곳을 사전에 내정해 놓고 있다면 이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어떻게 막을 수있겠습니까? 극동건설에 의뢰한 부지선정 용역결과를 말

씀해 주십시오. 3,600만원을 들여서 부지선정 용역을 의뢰한 결과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일본의 경우처럼 철저하게 주민들의 의견을 우선시하는 정책으로 소각장 부지선정을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이나 유럽의 경우 소각장 건설부지 인근에는 주민들을 위한 각종 체육시설과 복지시설을 더불어 지어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정책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부지선정예정 지역에 이러한 편의 시설을 제공하는 등의 정책으로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낼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趙基燦 네. 최동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분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습니다. 구청측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40分 停會)

(18時10分 續開)

○議長 趙基燦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구청측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국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總務局長 金相國 정창만의원님께서 안전진단 장비를 예시로 들어주시면서 구입을 해서 노후된 건물이라든지 웅벽을 측정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 민방위 부서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는 조금씩 차이도 있기는 합니다마는 균열진행 측정기, 그리고 자동카메라, 만능사다리, 비상라이트 이런 종류로 해서 9종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6월경에 저희들이 시장조사를 했고 10월 중으로 구입을 해서 실무부서에서 이것을 가지고 현장에 나갈 때 직접 활용해가지고 안전진단이 필요할 때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해 주시고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계락의원님께서 국내외 자매결연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추진실적 및 성과 그리고 예산 그리고 또 중국의 순의현 방문한 민간인의 신원 인적 사항, 또 중국의 순의현에서 우리 구를 방문했을 때 하림각에서 만찬회에 참석한 기업인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재 국내외 자매결연으로서 국내는 담양군과 영월군이 95년 12월 5일에 자매결연을 체결했고 이천시와 지난 97년 9월 26일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국제는 중국 순의현이 96년 10월 25일 우호교류협력관계를 체결해서 상호 방문을 했고 금년 7월 15일 성북구 대표단이 순의현을 방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동북구에 대해서는 금년 9월 3일 모스크바 850주년 기념식에 실무 대표단이 또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일본 동경에 아라카와 구에 대해서는 국제교류를 위해서 실무 대표단이 상호 실시를 저희가 제의를 해 놓고 있고, 캐나다 브랜튼 시에는 현재 교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에 지출된 예산은 중국 순의현 방문에 3,199만 8,000원과 러시아 동북구 방문에 1,929만 1,000원해서 총 5,128만 9,000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말씀하신 성과로서는 저희가 현재 당장에 큰 성과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상호 방문과 교류로써 견문을 넓히고 상호 도시의 이해와 신뢰 폭을 넓혀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중국의 경우에 해외시장 진출 능력이 미약한 그런 관내 중소기업들을 중국에 국제 무역박람회에 참가해서 해외 진출 기반 조성과 해외 판로망 구축에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기여한 바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앞으로 경제 분야에서 더욱 더 발전해서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의원님 말씀에 실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제교류 초창기에는 역시 왕복하는데 비용이 수반되는 그런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순의현 방문시에 민간인 대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는 신원 사항은 외무부 여권과에서 비자발급과 출국 신고시에 사전 검열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해

서 개별적으로 지금 신원조회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적 사항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 순의현 대표단이 성북구에 방문시 만찬 간담회는 당초에 하림각으로 계획했습니다마는 올림피아 호텔로 변경해서 했는데 그때 중국에 진출했거나 관심있는 관내 기업인 여섯명이 초청돼서 참여를 했습니다. 이 역시 인적사항은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능조직이나 위원회의 실효성 여부와 함께 위촉자 신원의 인적 사항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현재 직능단체, 사회단체에 대한 등록법규는 금년 3월부로서 폐지가 되어 가지고 등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약 40개가 되고 그 외 각 분야별로 또는 자문을 받고 있는 자문위원회라든가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과 또 역시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가 개별적인 신원에 대한 인적사항은 현재 저희가 실시를 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관내의 덕망이 있다거나 신망이 있다고 보는 외양적으로 판단되는 단체의 추천에 의해서 저희가 추천을 해서 위촉을 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두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基燦 김상국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식 재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財務局長 鄭顯植 재무국장 정현식입니다. 최동환의원님께서 구급고 자금관리실태 전반에 관해서 아주 종합적이고 체계적이고 분석적인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건에 관해서는 작년 정기회 이후 계속 기회 있을 때마다 최의원께서는 집행부에 조언을 하시고 또 때로는 아이디어를 주시고 또 상당량의 자료도 획득하고 제십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특히 재정수지 개선을 위해서 끈질기게 집념어린 그야말로 진지한 의정활

동을 하신 최의원께 우선 경의를 표하고 개인적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질문하신 것은 먼저 상당히 종합적이고 좀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정리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금고에 월 평균 잔액이 150정도이고 평균율이 연리 6.42%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과거에 95년도, 96년도까지 그랬습니다. 실제로 맞습니다. 아주 제대로 사실에 입각한 지적 말씀입니다. 그러나 금년에는 평균 7.5%로 올랐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자금은 3개월짜리 정기에금에 들어있다 그것도 사실과 매우 근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6개월 내지 12개월짜리가 43%고, 3개월짜리가 31%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기타 1개월짜리가 2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정기에금을 가입해 놓고 6개월 내지 1년이 넘도록 방치해 둬으로써 3개월에 상당한 이자를 받았다 이자손실을 초래했다 하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96년 6월에 5,000만원짜리 한 건이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아주 제대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는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자금운영이 근본적으로 잘 될 수가 없는 것이 예산편성이나 배정은 기획예산과에서 그리고 세입 분야는 세무관리과에서 그리고 지출 및 자금운영은 재무과에서 별개로 움직이는 조직체계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천상 생태적으로 제대로 통합적인 관리체계가 확립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도 꼭 이러한 방향은 아니지만 현재 조직운영하는 기본 법령에 따라서 업무분장 자체가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는 구청장의 철학에 입각해서 조직 체계 전반에 관한 지금 진단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 개편을 포함해서 제한 없이 한계를 두지 아니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걸르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거기에서 접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업은행의 서비스 실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적시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구청이 대고객인데 민간기업이 이렇게 홀대할 수가 없을 것이다 참으로 친절하지 못하고 질 낮은 서비스를 구청에 대해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려서 아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마는 하나도 꾸미지 않고 공무원은 사실은 행이 저희들한테 친절하게 하는지, 불친절하게 하는지를 미처 생각을 못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지난해 까지 서울시 금고가 시 본청에는 우대금리를 주는데 각 지점에 거래하고 있는 각 구청의 금고에는 이러한 사항을 알리지 않아서 우리 구를 포함해서 상당수의 구가 금리 손실을 보았다 이것은 사실에 입각한 말씀입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해 9월과 12월에 저희들도 시 금고가 시청에 대해서 주는 것과 똑같은 우대금리를 적용받고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까 말씀올리다가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 안 드린 게 있어서 하나 참고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난 정기회 이래 최동환의원께서 이러한 것을 문제시 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접근하고 구청을 잘 지도한 결과 그 도움에 힘입어서 우리가 올해는 이자 수입이 엄청나게 늘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95년에 이자 수입이 6억 9,800만원 뿐이었는데 그리고 96년은 9억 6,300 연간 수입이 그렇습니다. 올해는 9월말 현재 13억 4,100만원이 돼서 9월까지 실적이 지난 해의 연간 수입보다 무려 43%가 증가되었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수의계약에 의해서 상업은행이 가지고 있는 독점적 지위 때문에 부당한 횡포를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그 방법을 바꿔야 하지 않겠냐 하는 말씀도 원론적으로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까 최의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현 단계에서 이 시점에서는 당장 금고를 상업은행에서 타은행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자유경쟁 원리를 도입해서 보다 나은 재정수지개선에 이바지할 길이 있다면 확고히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다음에 구 자금에 회계별 관리에 대해서 일반회계는 재무과가 관리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각 주관과 또 기금 역시 각 기능부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리는 똑같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이런 원인은 내부부가 각급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권고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공공자금의 안정성도 매우 소중하게 다뤄야 하지만 수입성 제고라는 측면 또한 의면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최동환의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아울러서 특별회계와 기금만이라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관내에 있는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에 맡겨놓을 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그 취지와 제한한 동기 고마움은 충분히 인정하면서도 현재 마을금고법상 실정법상 마을금고가 수납업무는 맡을 수 있지만 취급업무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금고의 기본법과 상충된다 하는 점을 말씀 올립니다.

그다음에 최동환의원님께서는 구 자금의 실질적인 통합관리를 위해서 재정담당 전문가를 채용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건 역시 이 자리에서 단정적으로 구의 의견을 구의 견해를 답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하는 말씀 올리면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 조직 체계 스타디하는 조직 발전팀이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번 걸러보도록 의원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금권에 관한 조례 제정의향은 없느냐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 건 관련해서는 재무국장이 저희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어제 개회식 때에 의장님께서도 집행부 간부는 소신을 분명하게 명쾌하게 답변하라고 당부하셨고, 또 존경하는 최동환의원님께서도 어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가지고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가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상대적인 입장을 알면서 성심으로 협동해서 일을 잘 추진해야 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을 명명하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단계에서는 법적 근거나 장치가 없어서 우리가 이자수입을 올리지 못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법령 자치법규 우리 조례를 제정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하는 말씀을 실무국장으로서 올립니다. 여러 가지 답변이 미흡하고 또 질문하신 의원님께서 질의하는 내용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제 능

력의 한계로 보시고 널리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議長 趙基燦 정현식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수현 시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市民局長 尹守鉉 시민국장입니다. 정창만의 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가 많이 올랐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잘 지적하셨습니다. 작년보다도 수도권 매립지 반입료가 107% 올랐습니다. 금년에 43억원을 우리가 반입료로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 대행업체 용역에 대해서 확대할 용의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지금 청소대행업체는 78년부터 일부 실시를 해가지고 지금 두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강남환경 개발에서는 길음동, 중암2동, 월곡2동 일부지역을 하고 있고, 또한 공동주택을 118개소나 하고 있습니다.

철한정화에서도 동선동, 삼선2동, 안암동 일부지역과 공동주택 78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한동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도로나 일부 건물을 조개가지고 지금 용역이 되어 있고, 이제 방금 보고드린 대로 공동주택의 전 구역에 이 사람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청소 책임 문제라든가 또 작업 시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는 지금 공동주택은 가능하면 우리 직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일부 도로 조개 있는 것은 동 단위로 줄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확대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지금 이 두 군데에서 청소하는 것이 상당히 민원을 야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 일부 대행업체를 지금 모집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추진과정은 의원님들에게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미화원 수가 몇 명이나, 지금까지 466명입니다. 또 미화원 퇴직수가 몇 명이나 하셨는데요, 지금 95년에 31명, 작

년에 40명, 금년에 현재까지 26명으로 해서 총 97명이 자연감소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최동환의원님께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물으셨습니다. 정말 큰 관심을 갖고 질의하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부지선정 만큼은 밀어부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주민이 납득한 후에 선정하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청회를 열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또한 2001년까지 부지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지난 3월에 우리 구에서 일본 쓰레기 처리시설을 5군데 견학을 했는데, 잘되는 소각장만 보고 문제점 있는 소각장은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의원님 다섯분을 모시고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동경에는 지금 14개의 소각장이 가동중에 있습니다. 그 중에 5개소를 견학을 했습니다. 또 농촌지역이라고 하는 나라현도 갔습니다. 상당히 농촌지역이더군요. 이것은 지금 주민이 자치로 운영하는 곳인데요, 전체 일본을 다 안돌아봤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는 소각장이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계획서에는 나름대로는 상당히 이곳 저곳을 견학을 했습니다. 참고로 보고서에도 여러 의원님에게 보고서를 올렸습니다만 후쿠오카 같은 곳은 60년도에 건설을 했습니다. 지금 세번이나 시설개수를 했어요. 한 10년이면 시설 못습니다. 여러 의원님도 같이 가셨지만 제가 질문을 했어요. 바로 그 옆에 담장 옆에 학교가 있더군요. 학교가 먼저 생겼냐, 쓰레기 공장이 먼저 생겼냐고 물었습니다. 학교가 먼저 생겼대요. 그 앞에 골프장이 있는데 바로 지금 주택단지로 지금 건설을 하고 있더군요. 동경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동경은 지금 19개의 시설이 있습니다. 14개는 가동을 하고 있고 세개는 개수를 하고있고. 지금 두 군데는 신설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 의원님이 보셨지만 가는데 마다 굴뚝입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 공장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말 의지를 갖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이옥신이나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한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물론 그런 문제점도 나온 공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2001년까지 부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기한이 있습니다. 그 후에 시설을 서울시에서 책임지고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환경 문제가 세계적으로 한 10년 전부터 눈을 뜨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잘나가도 가는 세상인데 지금 우리나라도 큰 기업체가 여기 소각장이나 소각로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설할 때에는 최신시설이 되지않겠나 이런 기대도 해봅니다. 지금 소각장 있는 노원구와 합동으로 한 번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를 해 봤느냐 이러셨는데, 제가 동북구 환경 협의회 회의실에 한 번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600톤 하고 있는데 우리도 한 번 해보자, 같은 협의회체를 구성이나 해보자, 말도 못하게 해요. 자기들도 지금 300톤 정도를 하루에 하고 있어요. 전체 600톤 할 수가 있는데 주민들 반대로 못하고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제 회의도 했습니다만, 다행히 음식물 쓰레기 일부는 두군데 농장과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반출을 시킬려고 계획을 짜고 있고, 아마 오늘부터 들어갈 겁니다. 또 이제 일부 신문에 소각장이 정릉지역에 설치가 되고 그런 신문이 났는데, 거기에 추진 경위와 또 용역 결과가 어떠느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오전에 이대일 의원님께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최의원님께서도 모두에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는 현재 김포군 검단면 수도권 매립지에 지금 수송 매립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매립지나 서울시에서는 앞으로 소각방향으로 거기 내년 안가면 못잡니다. 소각방향으로 처리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96년도부터 수도권 매립지 건설운영비를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에서는 한 구 한 자치구 한 소각장 자원회수시설이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만, 시설이 되도록 우리에게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2001년까지 소각장 부지를 선정한 구에 대해서는 그 시설비 전액을 주겠다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한 6~700톤 할 때는 한 천억원쯤 들어가는데 아마 4~5년 후에는 한 1,500억원 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보다는 이것은 절대절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각장 입지선정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작년 10월 7일에 입지선정 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홉명으로 되어있습니다. 공무원하고 전문가 또 우리 구의원님, 주민대표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입지 타당성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극동건설에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붙여가지고 3,600여만원을 들여가지고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31일날부터 금년 4월8일까지 용역기간을 줘가지고 용역결과를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지금 20개 항목으로 해가지고 깊은 검토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거기에 맞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또 문제점으로 드러난 사항이 한 몇가지 있기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공원용지 지역입니다. 또 군사보호지역입니다. 그게 좀 문제점으로 나타났고요, 이것은 우리가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그리고 결토량이 좀 많다, 또 동식물 생태계에 좀 영향을 미친다, 대기학상 좋은 위치는 아니다, 이런 용역결과가 나와있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며 주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을 우리가 검토를 하려고 하고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절대절명이기 때문에 이 소각장 건설 안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우리 쓰레기 누가 가져갈 사람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제2의 핵폐기물이라고 이렇게도 이야기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이 기회에 의장님께, 또 여러 의원님께 건의를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제발, 저도 예산이 허용되면 청장님한테도 건의를 올리겠습니다마는 여기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은 지금 2대입니다. 3대가 제가 알기로는 내년 7월2일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여러

의원님이 전부 나오셔서 당선되기를 개인적으로 바라는 사람입니다. 내년 3대때에는 꼭 여기 입지선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끼리 합의를 해주셔가지고 우리한테 건의도 하고 우리한테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해주시고요, 또 내년에 일본, 우리가 가 본 중에서는 상당히 좋은 곳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5개 공장은. 전의원님이 일본을 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본에 갔다 온 후에 여러 가지로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보고서에도 상세히 올렸습니다마는 일본은 정말 잘돼있습니다. 정말 잘돼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 작년 연말에도 아마 유럽에 가실 때 청소공장을 한 군데 보신 것으로 알고있는데요, 제발 전의원님께서 일본을 한 번 시찰을 해주실 것을 이 기회에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지금 우리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는 이제 못들어갑니다. 김포로. 내년 이후에는 음식물쓰레기는 못들어갑니다. 못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2001년까지 부지를 선정해 주면 시설비를 전액 주겠다는, 서울시의 이 방침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제 변할지는 모릅니다. 앞으로 이 방향이 그대로 유지되기를 저는 학수고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방향이.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가 1,500억이라는 시설비를 우리 자비로 부담을 해야 돼요. 지금 수도권 반입료 107% 올랐다는 것을 여러분 오늘 처음 아실 겁니다. 계속 오릅니다. 계속 오를 것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셔가지고 지금 내 구역에 이런 것이 들어오기 때문에 하지마라 이런 말씀 하셨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우리 구청 마당을 하든 이 산을 하든 어디든지 해야 합니다. 우리 관내에 해야 됩니다. 다른 구에는 안 받아줍니다. 절대 안받아줍니다. 동경도 그렇죠? 의원님들 보셨지만. 절대 지금 19개가 있습니다마는,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도시 것 안받아줍니다. 받아주는 조건이 하나 있는데 고장이 났을 때 서로 연계해서 하자 이 조건이지 다른 도시 것은 안받아주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굴뚝이

에요. 동경 시내 19개 골목 한번 보세요. 제발 여기에 큰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특히 최동환의원님께서 이렇게 큰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議長 趙基燦 윤수현 시민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석안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都市管理局長 朴石安 정창만의원님께서 구정의 발전과 시민의 재산과 인명보호를 위해서 시설물의 안전관리, 또 지역환경과 경관개선을 위해서 다각도로 사진도 촬영하시고 또 외부 타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선례에 대한 자비로 기구까지 구입해가지고 우리 구 행정에 발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충언을 해주신 데 대해서 심심한 사의를 드리면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순서별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관1동 노인정이 부설공사가 돼가지고 노인정 개원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면 재시공을 해서 완벽한 공사를 할 용의는 없느냐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이승로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실 때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저희들이 외부적으로 방수가, 물기가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다 찾아가지고 누수원인을 규명해서 일단 방수공사를 전부 보수완료했습니다. 다행인지, 이렇게 말씀드려서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일 또 비가 온다고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완벽하게 보수공사를 완료했는데 비가 오면 다시한번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잘못 된 부분이 있다면 완벽하게 치유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수공사도 조속히 서두르고 나머지 마무리공사도 2~3일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해가지고 하루속히 노인정이 개원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다음 돈암3-2, 3-3 재개발구역 경계 중간에 옹벽을 계단식으로 설치하여 인공폭포를 설치함으로써 미아리고개의 역사성을 살

리고 도시경관을 제고할 용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우리 지역개발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재개발 현장 답사시에 이 문제를 현장에서 직시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에 양쪽 재개발사업 주최측과 여러차례 협의를 하고 논의를 했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굉장히 차원도 높고 또 실제로 설치했을 때 기대효과도 상당히 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양측 사업주체와 충분히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 조합측에서 나오는 사항은 이미 양쪽 재개발구역에서 전부 관리처분을 다 하고 남은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까지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이 부분에 인공폭포를 설치한다고 가정을 하고 가상설계를 했을 때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약 15억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 하나의 문제가 되겠고 조합측에서는 이런 비용을 별도로 조합원들한테 새로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했을때는 여러 사람들의 집단적인 민원이 발생되고 주민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다 하는 사항 하나하고, 또 의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 보셨겠지마는 기히 이미 옹벽의 공사가 상당히 진행돼 있고 어스앙카가 박혀있고 또 지반구강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 한쪽 부분을 절단하거나 커팅을 했을 때는 나머지 부분에도 전반적으로 옹벽을 재보강하거나 보안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를 가지고 이 사업주최측에서는 일단 자기들 비용부담으로는 설치가 곤란하다는 의견입니다. 저희들도 그러면 이 부분을 조합측에서 시행을 못하면 구청예산으로 시행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고 검토를 하고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현재는 저희가 우려하는 것이 아파트가 아직 골조가 다 안 올라갔기 때문에 그 지적하신 부분이 미아리고개를 올라가고 내려갈 때 전망이 확 트이게 한 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나 상가건물이 다 올라갔을 때 이것이 아파트나 건물에 가려가지고 시야가 굉장히 차단될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도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구에서 15억이라는 돈을 투자해가지고 그만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도 상당히 우려

가 되고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주체하고 우리 구청하고 앞으로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해서 연구 발전시켜 나가겠으며 만약에 인공폭포 설치 가 정 불가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체될 수 있는 대로 어떻게 하면 경관을 제고시키고 아파트 환경을 좋게 해줄 수 있는지를 다른 방안도 아울러서 검토해서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너무 속단해서 결정하기는 너무 많은 비용과 노력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적인 노력과 열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우선 당장 충분한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정창만의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議長 趙基燦 네, 박석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구청측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과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창만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鄭昌萬議員 의석에서—여기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받았습시다마는 미흡한 점은 관계관과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최계락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崔桂洛議員 의석에서—됐습니다.)

최동환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崔東煥議員 의석에서—답변 없이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崔東煥議員 최동환의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고 해서 보충질문을 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의 질문내용이 구청장의 어떤 결단이라든지 법령의 해석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더 심도있는 그런 답변준비가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며칠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질문에 비해서 너무 답변내용이 준비되지 못했다는 인상을 지을 수가 없어서 일부 오해의 소지도 있고 그래서 답변은 필요 없습

니다. 하지만 답변내용 중에서 잘못 알고계신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본의원의 준비된 내용이 자칫 왜곡되게 전달되지 않을까 싶어서 나왔습니다.

3개월짜리 단기에금의 적금시키는 비율이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를 기준으로 두고 그렇게 말씀하신 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구청의 예금단위가 1억이 넘는 것은 거의 그동안 93년 이후부터 대부분이 3개월 또는 1개월짜리로 예치가 되었고 6개월 내지 12개월로 장기예치하는 금액은 1,000만원 단위 혹은 5,000만원 단위가 대부분입니다.

그 액수로 비해 보거나 아니면 건수로 비교를 해도 대부분이 1개월 내지 3개월로 예치를 했는데 국장께서는 어디를 근거로 이렇게 저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재계약 지원 건수가 96년도인가 한 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의원님들께 드린 자료는 예를 드리기 위해서 한 페이지를 복사를 해서 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상업은행으로부터 공금성 정기에금 해약 거래명세 자료를 전산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94년 11월부터 95년 4월까지 구청에서 예치한 3개월짜리 적금을 보면 전체 48건인데 이 계약건수 전체에다가 3개월짜리 계약을 해 놓고 6개월 이상을 넘겼습니다. 이것은 그당시 3개월 금리가 5%이고 6개월짜리가 7%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건수가 이자율 2%를 손해를 보고 6개월 이상 예치된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례입니다. 저는 우리 관계관께서 한 건있다고 말씀하시길래 그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또 나왔습니다. 그리고 당장 타은행으로 금고 계약을 바꿀 길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길이 많습니다. 왜 많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미 서울시와 노원구에서 관련 학자들하고 변호사들에게 어떤 법률적인 자문을 구했던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면 금고의 지정은 구청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법 시행령에는 금고 설치 계약은 금고와 구청간의 계약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고 재정법 시행령 72조 2항에는 계약에 의한 금고는

구청장 금고로 하여금 금고 업무에 관한 법령, 조례, 규칙이 정하는 모든 업무를 준수할 것을 약정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조례와 규칙 내용만 있으면 구청장이 금고에 약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북구는 조례와 규칙이 없기 때문에 규칙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조례가 없기 때문에 약정의 조례에 따른 어떤 제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조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포괄적으로 해석하면, 그리고 법률자문에 의해서 금고의 계약은 중대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재계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의 말을 빌리면 구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한다면 그것은 이미 계약의 중대한 사유가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회에서 관련 조례만 입법을 하면 그게 계약 해제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이 계약한 내용과 구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다른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제의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의회에서 조례만 통과시키면 구청은 다시 계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 담당 전문인력의 채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러는데 필요하다면 할 수가 있습니다. 보건소 의사도 마찬가지로 교행정과에 교통전문요원도 지금 전문직으로 채용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재정담당 전문가를 한 명 채용하자는데 그게 그렇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인지 본의원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다시 한 번 조례제정에 대해서 강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하는 조례는 주민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 것은 안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나 하면 우리가 청주시 의회에서 만들었던 행정정보공개 조례처럼 주민의 권익신장과 이해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는 만들 수가 있습니다. 법령에 명시가 없더라도, 우리가 금고설치와 운용에 관한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주민들의 피해를 입히는 조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금고를 활성화시켜서 재정 운용을 제대로 해서 주민들에게 좀 더 나은 이자를 받아서 구재정에

보태주고자 하는 그런 취지가 담겨져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전혀 법률적으로 하등에 문제가 안 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여러 가지 시간을 거쳐서 다음 번 임시회의 때는 적극적으로 금고 운영과 관련된 조례를 상정할까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議長 趙基燦 네, 최동환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은 본인이 요구를 안 했습니다. 구청관계과장님께서도 방금 질문하신 사항을 잘 메모를 해 두셨다가 다음 정기회 때라든가 우리 구의회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미흡한 점이 있으면 서면으로 요구를 해서 답변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영호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時00分 散會)

○出席議員 40人

崔 哲 模	洪 性 濤	朴 景 錫
任 泰 根	申 宗 鉉	文 京 周
金 東 殷	許 東 翼	金 順 權
宋 夏 星	柳 興 先	吳 榮 作
尹 晚 丸	金 光 植	安 敦 洙
金 榮 植	朴 時 俊	李 大 一
高 尹 根	徐 榮 振	徐 化 錫
金 甲 濟	俞 鎭 武	金 鈴 基
金 振 權	李 鍊 垌	崔 東 煥
柳 成 烈	羅 光 洙	趙 基 燦
丘 在 永	尹 弘 老	李 龍 燮
金 珉 奭	安 傑 珞	金 壽 榮
崔 桂 洛	李 承 魯	鄭 昌 萬
金 南 孝		

○缺席議員 2人

權 赫 騏 辛 在 福

○參席專門委員

專 門 委 員	裴 京 喆
專 門 委 員	崔 石 根
專 門 委 員	林 洛 吉

○參席公務員

